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48호

Thursday, June 20, 2024 A

## 바이든 식 “불체자 프리패스” 논란

미국 국민들의 불법체류 배우자 50만 명에게 영주권을 빠르고 간편하게 주겠다는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가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부분 관계자들이 이같은 발표를 “라틴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의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공화당 측은 “불체자 50만 명을 빠른 시일 안에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어 잠재적 민주당 지지 유권자로 만들겠다는 술책”이라고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이같은 정책과 관련, “조 바이든은 전 세계에 불법 입국을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나 법원, 미국 국민의 승인이 없는 오늘의 행동은 불법이고 위헌”이라면서 “바이든은 미국에 들어온 수백만 명의 외국인들을 대량 사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영주권을 받고 신속하게 시민권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일 더 많은 미국인이 불법 외국인 범죄자들의 손에 강간당하고 유괴되며 잔인하게 살해 되는데 바이든은 그들을 미국으로

바이든 “불법체류 배우자 50만명에 영주권” 명령  
“불법 입국하면 어쨌든 시민권 획득” 메시지 우려  
“대선 앞두고 라틴계 유권자 향한 선심 정책” 비난 거세



석방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배신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당선되면 임기 첫날 이를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연방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출국을 의무화하고 있다. 출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출국 면제(웨이버) 신청을 하고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처지에 놓인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50만명에

게 해외 출국이나 웨이버 신청 없이도 영주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혜택을 받게 될 불법 체류자들은 대부분 라틴계 중남미인들로 추정되고 있다.

불체 배우자는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했으며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만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요건을 갖춰 이민국에 신청을 하면 임시 워크 퍼미트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얻은 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 행정명령에는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 5만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연방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오는 8월 말부터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백악관은 DACA 시행 12주년을 맞아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이민 커뮤니티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 북·러, 공격 받으면 상호 지원



1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악수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사람은 양국 관계를 사실상 동맹 관계로 격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 김정은·푸틴 군사동맹 손잡다

합법적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불법적 핵 개발국인 북한이 군사 동맹을 선언하며 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었다.

19일 평양에서 회담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뒤 언론 발표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선언했다. 푸틴은 “오늘 서명한 조약은 무엇보다도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고, 김정은은 “두 나라 사이 관계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푸틴과 김정은은 이날 오후 6시쯤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정상회담 뒤 생중계로 진행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번 조약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격상됐다”고 했다.

푸틴은 “양국 간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적 관계에 관한 조약은 비약적 발전의 의미를 담은 문건”이

라면서 “정치·경제·무역·문화 인도주의적 분야와 안보 분야와 관련해 이정표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조약에 따르면 어떤 나라에 침략이 있는 경우에 상호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조약 원문은 곧바로 공개되지 않아 그가 언급한 ‘지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 희망한 것은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소 상호방위조약의 부활이었다. 해당 조약은 유사시 “지체 없이” “온갖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 이를 대체한 2000년 신조약은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에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고만 했다.

▶ 관계기사 15면 정영교·이유정 기자  
▶ 14면 ‘북·러회담’으로 이어집니다

## 워싱턴 열돔현상 ‘비상’... 7월에 더 심하다

워싱턴 등 대서양 연안 지역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열돔(Heat Dome)’과 ‘열파(Heat Wave)’현상으로 역대급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열돔은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둬 아래로 하강시켜 폭염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열파는 이같은 현상이 이어지는 것

을 말한다.

켄 쿨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는 “고기압골에서는 상층부 기단을 형성하게 되고 기단 침강과 압력에 의해 지표면의 기온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서 “기후변화 등의 여파로 대기권의 순환이 여의치 않아 열돔 지속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열돔이 가장 심한 곳은 오하이오 밸리와 북동부 지역이다. 그 사이에 끼여 있는 워싱턴 지역에는 이달 말까지 낮최고기온이 90도를 넘는 날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상당국은 전망했다.

이번 열돔은 상당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 체감온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작년 열파로 인한 사망자가 2300여명으로 최근 45년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관계기사 6면 김욱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육아휴직급여 100만원 올린다

(월 최대 150만→250만원)

### 2030년까지 출산율 1.0 목표 윤 대통령 "범국가적 총력 대응" 아이 낳으면 특공 기회 1번 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6개월)으로 100만원 오른다. 또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2주로 끊어 쓸 수 있다. 아내 출산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는 한 달로 늘어났다.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꼽았다. 이번 대책을 통해 윤 대통령 임기 내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을 회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백악이 무효였고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국가 총력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 저고위를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열기로 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고 저고위 민간위원과

**저출생 대책 주요 내용**

- 주거 및 결혼 지원**
  -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 ▶ 출산가구 연간 12만 호·4(기존 7만 호) 공급
    - ▶ 그린벨트 해제 등 신규택지 2만 호 발굴 후 최대 1만 4000호 공급
    -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간) 18%→23% 확대
  - 주택자금 부담 경감
    - ▶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 대출 소득요건 2025년 이후 2억 5000만원으로 확대
  - 청약 자격 완화
    - ▶ 신규 출산가구 청약 추가 청약 1회 허용
    - ▶ 신혼부부 청약 시 본인 및 배우자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 결혼 친화 인센티브
    - ▶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신설
    - ▶ 혼인으로 2주택 보유 시 양도세·종부세 1주택 간주 기간 확대(5년→10년)
  - 남양시술 지원 확대
    - ▶ 결혼 및 자녀 여부 무관 25~49세 남녀 기밀력 감진비 지원(1회→3회)
    - ▶ 4세 이상 남양시술 건강보험 본인 부담 30%로 인하, 연령 구분 폐지
    - ▶ 남양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 25회에서 출산당 2회로 확대
-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 유연한 사용 및 급여 인상
    - ▶ 단기 육아휴직 도입(1회·2주 단위 사용)
    - ▶ 육아휴직 분할횟수 2~3회 확대
    -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250만원 인상
  - 논치 안 보는 제도 사용 여건 마련
    -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상신청
    - ▶ 동료 업무 지원 월 20만원 신설
  - 이해 육아 휴직 지원
    - ▶ 이해 출산휴가 기간 10~20일 확대 및 분할횟수 1~3회 확대
- 교육·돌봄**
  - 교육·돌봄 확대
    - ▶ 0~5세 단계적 무상 보육·교육 실현
    - ▶ 초·중·고교 2026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
    - ▶ 야간 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 확대
  -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
    -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기존 중위소득 150%→200%) 및 지원 확대
    - ▶ 외국인 가사관리사 공급 확대(2025년 상반기 시범사업 1200명)
    - ▶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가사돌봄 취업 허용

관련 부처 장관들이 속하는 회의에서 대책 추진과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한다.

저출생 대책 추진을 위해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위상도 확 바뀐다. 그간 저고위는 자문기구일 뿐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 돈주머니인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이 중복, 낭비 없이 잘 쓰이도록 R&D(연구개발) 심사 수준의 사전 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집중된다. 신규로 추가되는 예산 4조원의 80%가 여기에 쓰인다.

우선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휴직 기간에 급여의 일부(75%)만 받고 나머지(25%)는 복직 후 6개월 일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휴직을 마친 뒤 복직해 금방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현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앞으로 100%(첫 6개월) 다 준다. 월 급여 최대 상한액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린

다.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00만원에서 510만원 올라 2310만원이 된다. 휴직 후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고(첫 3개월 최대 250만원, 이후 3개월 최대 200만원), 나머지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주되 지금보다 10만원 많은 월 최대 16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60%(현행 38.6%)로 오른다.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린 데 대해 주형환 부위원장은 "월평균 보수) 268만원 정도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타깃으로 했다"며 "더 올리고 싶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수요가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올리는 형태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7년까지 50%(2023년 6.8%)로, 여성은 80%(23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이어 쓸 수 있게 한꺼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고, 부모가 합쳐 최대 2년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쓸 때) 총 3년 쓸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육아기 단축근로 시에는 회사에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돌봄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0~2세만 대상인 무상 교육·보육을 내년 5세, 이후에는 2027년까지 3~4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100명을 투입하기

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규모를 1200명 수준으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주거 지원도 대폭 늘려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의 메리트가 되도록 했다. 올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2만 호 마련하는데, 이 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70%인 1만 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별공급(특공)도 신설된다. 특공 당첨자라도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청약 기회를 한 차례 더 주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 분양에서 각각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민간 20%→35%·신설(공공 50%)하는 등) 기회를 문을 더 넓히기로 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이력도 따지지 않기로 했다.

국민 대상 저출생 극복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아이디어도 대책에 포함됐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더 큰 평수로 이룰 수 있게 돕고 재계약도 최대 20년까지 허용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신설한다.

반면에 기업과 사회의 인식 변화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도 나왔다. 올해 3월 결혼한 김모(38)씨는 "육아휴직 횟수를 늘리고 쪼개고 다 좋은데, 기업에서 그걸 용인할까 우려된다"며 "솔직히 지금도 임신하신 분들이 눈치를 보며 단축근무를 잘 쓰지 못한다"고 말했다. 황수연·채혜선·현일훈 기자

## 저출생대책 60개로 집중... 이민정책·등록금면제 파격은 없어

### 300개 남발됐던 저출생 대책 줄여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예산심의권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여 만에 저출생 대책을 냈다. 그 전 정부와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삶을 강조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봤다. 하지만 "공허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번 대책에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직접적으로 내세웠다. 또 전 정부에서 사라진 출산율 목표(2030년 1명)를 되

살렸다. 반면에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거의 없다. 직접적으로 '출산 장려'라고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석할 만하다. 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 직전인 상황에서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하다.

인구는 대통령의 어젠다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는 뒷전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서 한 번도 대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두 번 했다. 윤 대통령도 그동안 등한시했다. 지

난해 3월 주재한 것밖에 없다. 이번에는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해 챙긴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왕창 힘을 실어준 점도 긍정적이다. 또 과거 저출생 대책은 종합선물세트로 불렸다. 300개가 넘었다. 반면에 이번에는 일·가정 양립, 교육·돌봄 등 3개 분야 60여 개로 줄었다. 선택과 집중으로 볼 수 있다.

이상립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여태까지 이것저것 남발하고 책임을 안 지는 행태가 반복됐

는데, 이번에 정부 책임을 강화하려는 건 달라진 점"이라면서 "비상위원회 체제로 가기로 했으니 대통령이 분명히 약속을 지켜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전의 복지 강화 정책의 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구조적인 대책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가령 교육 체계나 대학입시 제도가 출생아동 20만 명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데 70만 명 때 방식을 고수한

다는 것이다.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지만 핵심 정책인 외국인·이민 정책이 거의 검토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을 주기로 돼 있는데, 심의 결과를 기획재정부가 그대로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육아휴직 대폭 확대 등이 눈에 띄는 건 사실이지만 일본처럼 3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고교생까지 이동수당 지원 같은 파격적인 대책은 없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젊은층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황수연 기자

**워싱턴 날씨 (°F)**

21일(금)	95~75	☀	24일(월)	92~74	☁
22일(토)	98~80	☁	25일(화)	93~75	☀
23일(일)	98~81	☁	26일(수)	99~79	☀

6월 20일(목) 91~7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도왔습니다. 또한 미국에 11살때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약력**

- 버지니아로 1980년 이민
- 뉴욕주 로체스터대학(이스트만), 동대학원
- 시카고 게렛신학대학원
- 시애틀대학 로스쿨 법학박사(JD)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음악감독(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
-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총영사관 자문변호사(전)
- 버지니아, 워싱턴주 변호사 자격

**K 로펌 K LAW FIRM PLLC**  
www.alexkwakesq.com

**571.405.6540**  
alexkwakesq@gmail.com

7799 Leesburg Pike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 VA 공화 연방상원 후보 형 카우 확정

## 버지니아 예비선거 결과

베트남 난민 출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얻어 10 선거구 수하스 서브라마넴 민주당 후보 '진담승'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베트남 전쟁 난민 출신 형 카우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18일 치러진 경선에서 카우 후보는 62.4%를 득표해 나머지 4명의 후보를 압도했다. 다른 경쟁 후보는 모두 8-11% 득표에 그쳤다.

카우 후보는 "버지니아 유권자는 당장 우리의 국경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나는 그 명령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카우 후보는 5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미 대세를 결정지은 바 있다.

카우 후보의 가족은 1975년 패망한 베트남을 탈출해 서아프리카를 거쳐 미국 버지니아 난민으로 입국했다. 그는 TJ 과학고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폭발물 설치 및 심해 잠수 전문 해군 특수전 장교로 임명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전투지역에서 종군했으며 국방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 대테러 전담팀 등에서 25년간 근무했다.

그는 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학교 MIT 펠로십을 거쳤다.

카우 후보는 백인 아내 에이프릴 카우와 함께 버지니아 퍼셀빌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섯 자녀를 키우고 있다. 카우 후보는 2022년 연방하원 버지니아 제10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 민주당의 제니퍼 웨스턴 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다.

카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국경보안과 불법이민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과 민주당 지



형 카우 당선자 유진 빈드맨 당선자 서브라마넴 당선자

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보는 것은 무수히 많은 '침략 행위'일 뿐"이라고 공격하며 불법이민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케인 연방상원의원이 단독 출마해 이미 당선을 확정지었다. 3선을 노리는 케인 의원은 애초 불출마설이 돌았으나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연방상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연방하원 제10선거구(라우든,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 공화당 예비경선에서는 마이크 크랜시 후보가 64.1%를 득표해 나머지 세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됐다. 무려 12명의 후보가 난립했던 민주당 예비경선에서는 수하스 서브라마넴 후보가 30.3%로 간신히 당선됐다. 기대를 모았던 덴 헬머 주하원의원(26.7%)과 앨런 필러-콘 전 주하원의장(9.3%)은 각각 2위와 4위를 기록했다.

제7선거구(스테포드, 스팟실베니아 카운티 등) 공화당 예비경선에서는 데릭 앤더슨 후보가 45.5%로 6명의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경선에서는 유진 빈드맨 후보가 49.4%로 당선됐다.

김옥재 기자

## 내홍 빠진 NAKS, 법정 간다

'추성희 총회장' 측 '손민호 총회장·이기훈 이사장' 상대 MD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홍에 빠진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이하 NAKS)가 결국 법정으로 향한다.

추성희 총회장 측은 "현재 재 각각 22대 총회장 권한 대행 및 16대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손민호, 이기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협의회가 지난 11일 메릴랜드 하워드카운티 순회법원에 손씨와 이씨에 대한 가처분신청서(C-13-CV-24-000480)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협의회(NAKS)의 법인명 및 로고, 직인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며 협의회의 명예와 신뢰도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특히 "이 씨



가 협의회 거래은행인 웰스 파고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은행잔고 수 만 달러를 탈취했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가 이런 분란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 중지를 비롯 유관 협력기관들과의 업무협조에 난항을 겪으며, 회원교와 교사들에게 제공해야 할 여러 혜택 제공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손씨와 이씨의 자격무효성 그리고 은행잔고 반환을 요구한다"고 알렸다.

한편 추성희 총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은 한인 단체 소송을 주로 수임하고 있는 찰 피터슨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용 기자



## "배움으로 노년의 매력 높이자"

### MD 상록대학 봄학기 종강식

메릴랜드 라벨 세계로 교회(담임목사 이병환) 상록회 부설 상록대학 봄학기 종강식이 지난 14일 열렸다.

지난 3월 개강한 봄학기에는 약 120여 명이 등록하였으며, 총 21개의 과목이 15주 동안 진행됐다.

이병환 목사는 축사에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삶은 힘을 잃게 됨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 건강이 삶에 중요하며 나아가서는 영혼의 강건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운 회장은 "또 하나의 학기를 성

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다"며 "열심히 배우고 남을 편하게 하는 것이 노년의 매력이며, 이 기술을 경륜으로 쌓아 건강하고 매력 있게 살자"고 덧붙였다.

종강식에서 김희수, 신상철씨가 제34대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김종만, 김종문, 문광수, 신상철씨에는 공로패가 증정됐고 줄리김, 존황, 김종만씨에게는 몽고메리 카운티 이그제티브 마크 엘릭의 표창장이 전달됐다.

한편 상록대학은 오는 7월 5일 8주 예정의 여름캠프를 시작한다. 학기는 9월 3일에 개강한다.

김윤미 기자

① 워싱턴중앙일보 광고·구독 : 703-281-9660

## 주미대사관,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과 협력 강화

주미대사관(조현동 대사)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봉주 해외안전 담당 영사와 이종규 외사협력관은 지난 18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을 방문해 제임스 크라우스 부국장 등 주요 인사들을 면담했다.

면담에서는 한인 밀집지역인 애난데일과 센터빌에서 최근 발생한 각종 사건이 주제로 논의된 가운데, 대사관 측은 치안 상황에 대한 한인사회의 우려를 전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은 지역사회에 대한 주요 치안유지 활동



왼쪽부터 디애나 윈드 경감, 김봉주 영사, 이종규 외사협력관, 제임스 크라우스 부국장

및 범죄 발생 동향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한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치안 강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카운티 경찰국은 한인사회에 경찰국의 안전 관련 프로그램 및 자원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주미대사관은 한인사회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경찰 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올인원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최신형 X-Ray 완비  
교정 및 물리치료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어먼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퀘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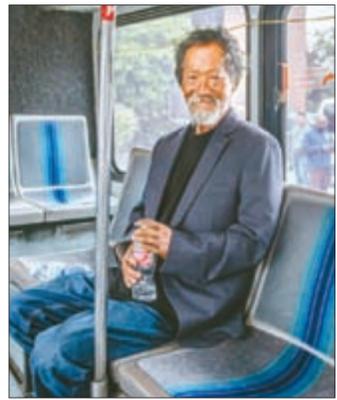


권용섭(왼쪽 4번째) 화백이 17일 수목화 10점을 레인 빅토리오 해상박물관 측에 기증하고 있다. [권용섭 화백 제공]

# 타운 노숙자, 셸터 이주 계속... 올해 세번째

## 현장르포

### 18일 인사이트 세이프 시행 이강원 목사 등 8명 모텔로 음식·재활 프로그램 등 제공



오랫동안 홈리스 생활을 하던 이강원 목사가 목자가 제공한 양복을 입고 셸터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김상진 기자

18일 오전 7시30분, LA한인타운 10가와 사우스 그래머시 플레이스 홈리스 텐트촌에 시정부 관계자 약 40명이 모였다.

이날 텐트촌에 머물던 한인 등 홈리스 약 8명은 미리 짐을 꾸리고 이주를 준비했다. 이들 홈리스는 캐런 베스 LA시장의 홈리스 이주 정책인 인사이트 세이프(Inside Safe)를 통해 모텔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텐트도 없이 길바닥에서 7년 6개월째 홈리스 생활을 한 이강원 전 아가페 홈 미션 목사도 이날 시가 준비한 버스(DASH)를 타고 모텔로 향했다.

이 전 목사는 “그동안 이야기하기 조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제(거리 생활) 스톱하려고 한다. 모텔에 가서 생활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넸다.

LA 인사이트 세이프는 홈리스 비상 사태 해결 방안으로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시장실 산하 전담팀이 직접 홈리스 현장조사와 민원접수 등

을 통해 홈리스에게 임시숙소인 모텔 또는 호텔, 임시셸터 등을 제공한다.

시장실에 따르면 인사이트 세이프 전담팀은 사전에 이주 대상 텐트촌을 확인하고, 홈리스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다

LA시장실 측은 “오늘 이주작업을 벌인 텐트촌은 5지구”라며 “홈리스 임시숙소 이주를 위한 아웃리치부터 실행작업까지 시장실 전담팀이 주도한다. 오늘 8명을 같은 지역구 내 모텔에 수용하지만,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홈리스 이주작업 과정에

서 한인 여성(60대) 홈리스는 사전동의를 반복했다. 이 여성은 “한인타운 안에 있는 모텔이 아니면 들어가고 싶지 않다. 어디까지나 내가 알던 곳, 안전이 확인되는 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말했다. 텐트촌에 머물던 일부 홈리스도 위생국 철거작업 청소 후 다시 텐트를 설치했다.

인사이트 세이프 정책을 통해 모텔 등 1인실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의 거주기간 제약이 없다고 한다. 해당 임시숙소에서는 음식과 재활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홈리스는 모텔 등에서 머물다가 다시 거리로 뛰쳐나온다. 최근 케네스 메히야 회계감사관이 공개한 인사이트 세이프 예산집행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홈리스 2728명이 모텔과 호텔 등 임시숙소로 이주했지만, 이 중 686명은 거리 생활로 돌아갔다.

한편 올해 들어 LA시장실은 한인타운에서 인사이트 세이프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10가/사우스 그래머시·윌튼/6가·윌셔가 로버트 F 케네디(RFK) 커뮤니티 스쿨 등 3곳의 홈리스들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했다.

민원이 잦았던 윌튼/6가·윌셔가 로버트 F 케네디(RFK) 커뮤니티 스쿨 구역은 현재 홈리스와 텐트를 찾아볼 수 없다. 김형재 기자

## 흥남 철수 빅토리오에 수목화 영구 전시

### 독도화가 권용섭 10여점

독도화가로 알려진 권용섭 화백은 지난 17일 LA 향구에 영구 정착중인 SS 레인 빅토리오를 방문하고 레인 빅토리오를 주제로 한 본인의 수목화 10점을 기증했다.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열린 기증식은 SS 레인 빅토리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해상박물관 회장단이 주최했다.

한국전쟁의 영향권에서 살아온 권 화백은 전쟁으로 삼촌을 잃는 등 가족간의 비애를 안고 살아왔다.

지난 2004년 미국 방문중 LA항 한쪽에 합체수리를 위해 정착중이던 녹슨 배가 한국전쟁 중에 운송하려던 화물 대신 피난민 7600명을 구출한 함선이라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에 권 화백이 기증한 수목화 10점은 지난 2015년 한국전쟁 65주년 기념행사때 수목화 퍼포먼스를 통해 제작하고 전시했던 대형 수목화를 재현

한 작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수리중인 레인 빅토리오가 완전히 복원되어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독도와 거제도를 순항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린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에 기증한 작품들은 향후 레인 빅토리오에 설치될 예정인 한국전쟁 기념관에 영구 비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권 화백은 이날 “장엄한 역사를 가진 레인 빅토리오에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담은 그림들이 영구 보존되는 것에 감사하다”며 “작품들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인 빅토리오 해양 박물관 부회장이 릴리아나 헤레라 씨는 “너무도 큰 선물을 받아 말로 그 감동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권 화백의 작품들을 구심점으로 앞으로 설치될 한국 전쟁관을 통해 레인 빅토리오가 한미동맹과 평화의 상징으로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 네바다 사막에 우뚝 정체불명 금속 기둥

### 설치자·목적 모호 궁금증

네바다 사막에 의문의 금속 구조물 ‘모노리스(monolith·사진)’가 발견돼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17일 라스베이거스 메트로 폴리탄 경찰국은 당국의 소셜 미디어에 한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이 사진에는 긴 세로형으로 우뚝 솟은 구조물이 주위의 바위 사막을 반사



하고 있다.

국내에서 모노리스의 발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도 유타주 남동부에서 큰뿔양을 조사 중이던 생물학자는 붉은 바위 사이 땅에 있던 모노리스를 발견했다. 현재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모노리스를 설치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정윤재 기자

## 복수국적 허가 때까지 해외 체류 가능

### 65세 이상이 신청 때 허용

65세 이상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경우 한국 법무부의 심사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7일(한국시간) 한국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 내 복수국적 신청자는 국내 거소증을 받아야 하고, 복수국적 신청 후 허가(심사결정) 때까지 해외 체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복수

국적 심사결정 당시에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복수국적은 시민권자 등 타국의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복수국적은 국내에 영주하려는 외국국적 소지 재외동포를 위해 마련됐다. LA 등 미국에 거주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한인 시민권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복수국적 신청자가 국적 심사결정 때까지 한국에 계속 머물

러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 통상 복수국적 신청부터 심사결정까지 7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5일 출범 1주년 동포들과 문답에서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신청 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복수국적 인정)하려는 사람은 영주 목적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소신고 및 심사결정 시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 DARCARS<sup>®</sup>

## LEXUS OF SILVER SPRING

###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 몽고메리 카운티 신임 교육감 지명

토마스 테일러

VA 스테포드 카운티 교육감 출신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토마스 테일러(사진) 버지니아 스테포드 카운티 교육감을 신임 교육감으로 지명했다.

테일러 지명자는 카운티 교육감 6년, 디스트릭 담당 부교육감 12년 등 총 25년의 교육계 경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올해 버지니아 리전 3 지역에서 '올해의 교육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는 스테포드 카운티 교육감에 재임하며 3곳의 학교 건설을 지휘했으며 두 곳의 비영리재단과 협력해 무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K-12 과정을 모두 마친 토박이 출신으로, 윌리엄앤매리대학에서 비즈니스 행정학으로 석사학위, 버지니아



대학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등록학생 16만 명으로 미국에서 5번째 규모의 대형 교육학군으로, 연간 예산이 30억달러를 넘는다.

테일러 지명자는 "모든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캠퍼스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

난 2월 모니와 맥나이트 교육감 사직 이후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 신임 교육감 지명절차에 착수했다.

맥나이트 교육감은 부교육감 출신으로 2022년 신임 교육감으로 지명됐으나 한 중학교 교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 중학교 교장은 맥나이트 교육감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맥나이트 교육감은 130만달러를 받는 한편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조기 사퇴했다.

테일러 지명자가 교육감에 취임하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최근 3년 사이 세번째 교육감이 된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교육위원회가 애초에 교육감을 제대로 뽑지 못해 예산 낭비는 물론 카운티 교육행정 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욱재 기자

# “청소년 ‘써머잡’ 구하기 어려워”

노인 참여 늘고 J비자도 증가

워싱턴지역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극복하고 호황을 이어가고 있으나, 10대 청소년 여름철 일자리 경쟁은 예년에 비해 훨씬 치열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감염위험이 높은 저임금 비숙련 일자리의 구인난이 가중되자, 상대적으로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써머잡 구인 경쟁을 낳았으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청소년들과 써머잡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노인들이 감염에 대한 우려를 털어내고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J-1 단기취업비자를 통해 동유럽 등의 해외 인력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식당 버스보이, 여름캠프 보조교사 조경 보조 등의 단

기 일자리 계약만 하면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보너스가 나오고 심지어 대학 학비 지원 조건까지 내걸었으나 올해는 사정이 상당히 개선됐다.

작년까지 친구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는 조건으로도 50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식당도 많았으나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다.

연방노동부 노동통계국(BLS) 통계에 의하면 작년 16-19세 청소년 단기 취업 비율은 33.2%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으나 올해에는 31%로 줄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중고교생 써머잡 참여 비율이 60%에 달했으나 이후 노인 계층 및 J-1 단기취업 비자 보유자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청소년 참여 비율이 줄어들었다.

1980년대 이후 청소년의 써머잡 참여 비율이 10%에서 현재 42%까지 높아진 점도 청소년 여름철 일자리 침체의 원인이 됐다.

김욱재 기자

# “그들이 전문가?...환자 가족보다도 더 몰랐다”

아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낸지 한 달여가 지났다.

양민 박사가 18일 중앙일보가 진행하는 영문 팟캐스트 '올 라이즈(All Rise)'에 출연했다. 양 박사는 지난달 2일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의해 총격 살해된 양용씨의 아버지다.

이날 양 박사는 팟캐스트에 나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LAPD와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정신질환자 대처 미흡, 시스템의 맹점 등을 지적했다.

양 박사는 “그들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혀 전문적이지 않았다”며 “그들이 그날 대처한 방식을 보면 도움을 요청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보다도 더 모른다”고 말했다.

일례로 도움을 요청한 정신건강국에서 파견한 한인 클리니션의 대응을 꼬집었다. 양 박사는 “클리니션이 와서 막상 아들을 본 건 1분도 안 되고, 심지어 내 뒤에 서서 고작 물어본 거라고는 ‘때렸어요?’ ‘맞았어요?’라는 말뿐이었다”



18일 양민(왼쪽) 박사가 미주중앙일보 팟캐스트 '올 라이즈(All Rise)'에 출연해 진행자들에게 심정을 밝히고 있다. 가운데는 진행자 알렉스 차오 변호사, 오른쪽은 시드니 손 변호사. 김상진 기자

며 “그리고 911에 곧바로 신고했는데 나는 그게 일종의 절차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팟캐스트는 ‘베너러블(Venerable)’ 로펌의 시드니 손 변호사, 알렉스 차오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손 변호사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한 부분이 법집행 기관이나 정신건강국 등 정부기관이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라며 “나부터도 그런 곳에 전화하면 단순히 ‘정부가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 그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대응할 것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팟캐스트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신고 시 법 집행기관 등의 명확한 프로토콜 설정 ▶법집행기관에 소수계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육 제공 ▶한인사회에 법 집행기관의 역할, 인식에 대한 교육 제공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양 박사는 “데이지건도 분명 있는데 그들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무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총을 쏘고 된다고 수락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아들은 분명 경찰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범죄 현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아무 법도 어긴 게 없는데 아들을 자극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의 방식이 전문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진행자인 차오 변호사는 타이완계 이민자다.

차오 변호사는 “미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네,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숨기려고 한다”며 “이는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팟캐스트에는 양용씨의 큰 형인 양인씨도 출연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한 소회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양민 박사와 변호사들의 팟캐스트는 오는 28일 업로드 된다. 본지 웹사이트(koreadaily.com) 또는 유튜브 채널(채널명 미주중앙일보)에서 볼 수 있다.

장영기 기자

부고

## 신봉자 사모 별세

메릴랜드 익투스교회 원로목사 신석태 목사(전위싱턴 침례대학교 총장)의 사모로 워싱턴지역 교계에서 찬송과 가곡으로 많은 활동을 하며 사랑을 받던 신봉자 사모(사진)가 6월 18일 오후 투병중 별세했다.

고인은 라벨침례교회를 개척한 신석태 목사와 함께 IMB 선교사로 일본에 파견돼 11년간 선교활동을 펼쳤다.

“고인은 은퇴후 익투스교회의 사랑 받는 어머니로 섬기다 85세를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유족은 남편 신석태 목사, 딸 김혜정, 사위 데이빗김, 아들 신호식, 며느리 엔젤라신 등이다. 고별예배는 21일 금요일 오후 7시 메릴랜드 소재 익투스교회에서 거행된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우선협정대상자 사립대학생 대상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결심 마이클 장**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L&C UNIVERSAL GOLF**  
Leader in the World of Golf Instruction

**NEW**

센터빌에서 **그랜드 RE-오픈!!**  
골프 열기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L&C Universal Golf 실내 골프장으로 오세요.

**골프 아카데미 스쿨**

- 일반인 레슨, 교정
- 슬라이스, 드라이버 비거리 향상 전문 교습
- 철저한 1:1 개인 레슨으로 이루어지는 정교한 아이언샷, 퍼팅 강습
- 주니어 연습생 레슨
- 회원 스크린 영상 서비스
- 하루 1시간, 3개월 후 변화

**센터빌 던킨도너츠 바로 뒷 건물**  
571-225-5342(직통) / 571-486-0909 14637 Lee Hwy. #109, Centreville, VA 20121

## 연준 인사들, '신중론' 합창 “금리 인하에 추가 증거 필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가 고무적이지만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세인트루이스의 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금리인하가 적절한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전에 인플레이션 둔화,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몇 달 또는 몇분기가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전 폴리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서 “한두 달 고무적인 뉴스에 과민반응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구체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묻는 데 대해 “예측하지 않겠다”면서 “지표들이 어떻게 진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4월과 5월 소비자물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최근 지표에 대해 “고무적”이라면서도 최근 지표가 엇갈리고 있는 것은 향후 정책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이날 워싱턴DC 소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행한 연설에서 최근 경제지표들이 “고무적”이라면서 경제 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된다면 “올해 하반기 중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준 인사들의 이러한 언급을 종합해 볼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최근 견조한 고용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 1분기 고개를 들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하는 등 미 경제 상황에 대한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된 미국 5월 소매 판매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4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보험에서 0.2% 하락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27만2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 상원서 여성도 징병 대상 추진

미국 의회가 부족한 병력 자원을 확보할 방안을 고민하면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 처리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당국에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모병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18~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에 징집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전쟁이 일어나 병력을 충원해야 할 때 대비해 징집 대상자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징병제를 운용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마지막이었다.

의회가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고려하는 이유는 미국이 최근 몇 년 군에 자원하는 인력이 줄면서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9일 의회의 이 같은 논의에 대해 “전 세계에 많은 위협과 분쟁이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군의 준비



주한미군 장병

[연합뉴스]

태세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는 시기에 의원들이 징병제에 대해 어떻게 다시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2020년에도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의회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의회는 이 제안을 여러 번 고려했으나 실제 법으로 제정하지는 못했다. 미국에서 여성은 2016년부터 군의 모든 보직에서 복무할 수 있으며 이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보수 공화당이 수년간 강력히 반대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검토해 단일안을 도출하게 되며 단일안이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입법이 완료된다.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징병 대상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등록시키고, 징병 대상 연령 상한을 현 25세에서 26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초당적 지지로 포함됐다. 남성의 등록 자동화에 대해서는 큰 반대가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징병제 재도입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최소 46개 주와 미국 영토에서 남성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대학에 지원할 때 자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두고 있어 등록률은 높은 편이다. 2023년에만 1천500만명 이상이 등록했는데 이는 전체 등록 대상의 약 84%다.

## 동북부·중북부 이번 주까지 찜통더위...“6월 폭염 이례적”

미국 중북부와 동북동 지역에 형성된 ‘열돔’(Heat Dome)이 지표면을 달구면서 이 일대 일부 지역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더운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NWS)의 기후예측센터(WPC)는 19일 예보에서 “폭염이 앞으로 며칠간 중북부에서 오하이오강 일대, 오대호, 동북부, 동부에 이르는 지역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일대 다수 지역에서 19~20일 중체감온도를 나타내는 열지수가 섭씨 38도에서 40도에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열질환에 주의해 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이 지역 수은주를 끌어올린 주된 이유는 미 동북부와 중북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열돔’ 때문이다.

열돔은 고기압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공기가 풍선처럼 가워진 가운데 뜨거운 햇볕이 열돔 내 공기를 ‘오븐처럼’ 계속 가열하면서 폭염을 유발한다.

앞서 텍사스주와 애리조나주, 오클라호마주 등 중부 및 남부 지역도 지난 달 하순부터 열돔으로 인한 폭염에 시달려왔다.

이 같은 열돔은 남부와 남서부 지역에서는 여름에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



지만, 6월 들어 동북부 지역에서 형성된 폭염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열돔 현상으로 인해 메인주를 비롯해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등 미 동북부 지역의 상당 수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들 지역은 이번 주까지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 인접한 동북부 끝자락의 메인주 카리부시의 경우 19일 낮 최고기온이 36도로 예보돼 4년 전 낮 기온 최고기록과 동률을 기록할 것으로 지역 기상청은 예상했다.

메인, 버몬트, 뉴햄프셔주 등은 위도가 높고 산악 지형이 많아 여름철에도 상대적으로 덥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6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날이 많다 보니 냉방장치를 갖추지

않은 가구 비중이 높아 이번 폭염으로 온열질환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기예보서비스 아쿠웨더의 폴 파스텔록 수석 기상예보관은 “이런 유형의 강한 폭염을 보는 것은 평범하지 않으며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메인주는 주 전역에서 도서관이나 각종 공공시설을 더위 쉼터로 개방해 주민들에게 더위를 피할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뉴욕주도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19~20일 이틀간 주요 주립공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공공 야외 수영장 개장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열돔 현상은 오하이오, 미시간, 인디애나주 등 오대호 연안 중북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일까지 폭염경보가 발표된 피츠버그는 19~21일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됐다.

중북부와 동북부를 뜨겁게 달구는 열돔 현상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며 주말 들어서야 다소 약해질 전망이다.

미 기상청 기후예측센터는 “이번 주말 들어 동북부(뉴잉글랜드) 지역의 더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 실리콘밸리에 중국 스파이 주의보

### 인사 보안 심사 강화

미국 정부가 중국 스파이 관련 경고를 키우자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들이 인사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미국에서 구글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오픈AI와 같은 첨단 분야 유명 스타트업들이 채용 등을 할 때 검증 절차를 더 엄격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국 정보기관이 주요 기업 직원들을 포섭해서 지적 재산과 데이터를 빼내려고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세쿼이아 캐피털 등 대형 벤처 캐피털들은 미 IT 개발자들이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경고를 들은 뒤 투자 기업들에 인사 검증 강화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쿼이아 캐피털은 일론 머스크의 xAI를 포함해 수십 개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방산 분야 AI 기업인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스파이



파이 문제는 특히 기업 소프트웨어, 거대언어모델(LLM), 무기 체계 등 분야의 IT 업체들에는 중대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작년 11월 미 주도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동료들과 함께 실리콘밸리에서 공개 행사를 개최하고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에 맞서라고 촉구했다.

또, 미 국방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중국 스파이 위협과 관련해서 조사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 정보기관의 위협은 현실이며, 지속적이라고 말했다.

# 부고

목사님의 사모로, 선교사로, 찬양 사역자로 평생을 섬겨온 **신풍자** 사모(신석태 목사의 사모)께서 2024년 6월 18일 향년 8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삼가 부고합니다.

### 고별 예배

▶ 일시 : 2024년 6월 21일 (금) 오후 7시  
▶ 장소 : **익투스 교회**  
4601 Muncaster Mill Rd., Rockville, MD 20853

### 하관 예배

▶ 일시 : 2024년 6월 22일 (토) 오전 10시  
▶ 장소 : **노백 메모리얼 파크**  
16225 Batchellors Forest Rd., Olney, MD 20832

### 유가족

남편 : 신석태 목사  
딸 : 김혜정  
아들 : 신호식

사위 : 데이빗 김  
며느리 : 엔젤라 신

손주 : 사무엘, 엘리사, 제이콥  
손주 : 니콜라우스

■ 연락처 : 익투스교회 301-924-5330 / 문흥택 703-899-3944 / 고좌승 301-466-4480 ■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JUNE 20th - JUNE 27th, 2024**

**HELLOKITTY** 50th Anniversary

**Limited Edition (Stainless Food Jar/Mug)**

**헬로키티 50주년 기념 한정판(죽통/텀블러)**



0.35 L/EA  
~~REG. \$48.49~~

**\$24.99**



0.48 L/EA  
~~REG. \$56.99~~

**\$29.99**



**HAITAI ICE**  
**BRAVO Ice Cream Cones**

**3 Vanilla + 3 Chocolate**

**해태 부라보콘**

**5+1 기획팩**

5.41-5.07 FL OZ X 6 EA/PKG

~~REG. \$13.99~~

**\$7.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 새로운 경제적 포퓰리즘이 온다

### 대기업과 부자의 낙수효과 없어 반기업적이고 친노동 정책 기조 무역장벽 높이고 기업규제 강화

새로운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공화당 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는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워싱턴 정가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고 전했다. 신포퓰리즘(Neopopulism)으로 불리는 이 정책 기조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기업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포퓰리즘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퍼스는 ▶모든 수입품에 10%관세 부과 ▶미국 회사의 중국 투자 금지 ▶중국 회사들의 미국 자본시장 진입 금지 ▶이민정책에 불응하는 회사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 ▶100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개발은행 설립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존 보수 정권이 내세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본인의 정책적 방향으로 내세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메리칸 컴퍼스의 창립자인 오렌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 연방 상원의원,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

카스는 “가장 큰 정책의 변화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높은 관세와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금융계가 벌어들이는 돈이 과연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냐고 반문하며 “생산적인 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본래 친기업적 성향이 강했던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신포퓰리즘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에 대한 불만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을 위해 낮은 세율과 적은 규제 등의 혜택을 줬지만 실제적인 이익은 중간층이 아닌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낙수효

과’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이 보수지지층이 신포퓰리즘으로 몰리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 여기에 대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기업적 정서가 확산하는데 일조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신포퓰리즘이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권자 중에 지지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론.

특히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신포퓰리즘이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

원의원, 조시 홀리 미주리주 연방 상원의원, 톰 코튼 아칸소주 연방 상원의원 등이 신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로 꼽힌다. 이들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구성에 주요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저자로 유명한 밴스 의원은 최근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용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신포퓰리즘 정책과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진보적 정책들이 공통점을 보여 ‘예상치 못한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밴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쉐든 화이트 하우스 의원과 협력해 ‘기업합병 보조금 폐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합병이나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이 진행될 때 받은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퓰리즘 성향의 의원이 좌우에 가리지 않고 뭉쳐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공화당 출신의 팻 투미 전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이 공화당을 떠날 수 있고 좌파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들과 정당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공화당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

### 브리프

#### 5월 소매판매 시장기대치 하회

5월 들어 소매판매 증가세가 예상을 밑돌며 미진한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상무부는 5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1% 증가한 703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0.2%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상승했다.

4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포함에서 0.2% 하락으로 하향 조정됐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요한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 네이버웹툰, 기업 가치 26억불

뉴욕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네이버웹툰의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약 26억7000만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북미 소재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17일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주식 공모가격 희망 범위를 주당 18~21 달러로 제시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 최대 3억1500만 달러를 조달할 전망이다. 상장이 완료되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종목 코드 ‘WBNTN’으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상장 완료 후에도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은 63.4%로, 지배주주로서 이사 선임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또 다른 주주인 라인야후(LY 코퍼레이션)도 지분율 24.7%의 주요 주주로 계속 남는다.

이와 별개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인 네이버 유허브(U.Hub)가 5000만 달러어치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네이버는 이듬해 세계 최대 웹소설 업체 왓패드를 6억 달러에 인수해 웹툰 엔터테인먼트 산하에 뒀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IPO를 계기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지적재산(IP)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현지에서 웹소설과 웹툰 IP를 확보하고 영상화하는 사업 등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의 강한 우정 유지 비결 ‘계모임’

### NYT, 영어로 ‘저축그룹’ 번역 한국 사회 ‘신뢰 문화’로 가능해

뉴욕타임스(NYT)가 한국인이 강한 우정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로 ‘계모임’을 소개했다.

18일 NYT는 ‘우정을 돈독하게 유지하는 한국인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모임 문화’를 보도했다. NYT는 계모임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 ‘gyemoim’으로 적고 영어로는 ‘저축 그룹’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휴가와 식사, 기타 사교 활동을 위해 저축하는 계모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계모임을 하는 한국인 김모(32) 씨와 이모(35) 씨의 사례도 자세히 다뤘다.

전직 교사이자 주부인 김 씨는 2014년 한 모임에서 만난 두 친구와 계모임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10년간 300만원 이상을 모았고 이 돈으로 지난해 가을 다 같이 부산의 리조트로 여행을 다녀왔다.



세 친구는 각자 업무와 가족 일로 바빠지만, 계모임 덕에 가까운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NYT는 계모임이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한국의 신뢰 문화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서울의 커피숍에 들어가서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가득 찬 가방, 노트북, 지갑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돌아왔을 때 모두 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다만 NYT는 “한국 사회에서 계모임을 잘 작동하게 해 주는 문화적 전통이 서구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참여하는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계모임과 같은) 공동 자금 운용은 (미국에선) 약간의 도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주택 임대료 다시 들쭉... “바닥 지나”

### 대기업과 부자의 낙수효과 없어 반기업적이고 친노동 정책 기조

최근 수년간 급격한 상승 이후 요즘세가 둔화하거나 하락한 주택 임대료가 다시 들쭉이고 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현상)과의 싸움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지난 1년 이상 아파트 신규 공급이 넘치면서 주택 임대료는 억제됐다. 지난해에는 공실률도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수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나가는 세입자는 예전처럼 많지 않으며, 이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빠르게 임대되고 있다.

워싱턴 D.C. 및 미주리 주 캔자스 시티와 같은 북동부와 중서부 여러 도시의 임대료는 올해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 대부분이 올해 주거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일부 아파트 소유주는 최악의 임대료 침체는 이미 지났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부동산 중개 웹사이트인 아파트먼트 리스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이



고르 포포프는 “임대 수요는 확실히 회복되고 있다”며 “바닥은 지났다”라고 말했다. 일자리의 강한 증가세는 임대인들에게 가격 결정권을 쥐게 하면서 임대료 인상에 한몫하기도 했다.

관련 상장 기업들의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 대형 임대주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 때 4% 이상 인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일반적인 물가 상승보다 높은 수준이다. 해안가의 일부 고급 주택의 경우 임차인에게 7% 가까운 인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투자회사들은 다시 대규모 아파트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고 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은 최근 해안가에 고가 건물들을 보유한 아파트먼트 인컴 리츠(Apartment Income REIT)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학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다 대학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샬리스프링 북대륙 연방의원(한의원)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러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첼러리(한의원)에서 10분, 워싱턴 주에서 5분거리



# 안과 전문의가 추천하는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 넣은 우메켄 NEW 아이클리어를 추천합니다"



정미란 안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국 소안과학회 (KAPOS) 정회원  
한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KSCRS) 정회원  
미국 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ASCRS) 정회원  
미국 안과학회(AAO) 정회원

- 은행잎 추출물
- 자색 고구마
- 비타민 A
- 루테인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아이클리어(정) 120 Tablets | Net WT. 0.9 oz (25.2g)

온가족 눈 건강 지킴이

개별 PTP 포장

- 산소와 열로부터 보호
- 위생적인 개별포장
- 간편한 휴대성

## 소중한 눈도 믿을 수 있는 우메켄에서 지켜드립니다

- 눈 노화, 안구 건조증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피곤한 눈을 지켜주는 최적의 보충제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부터 눈 노화 집중 케어를 원하는 시니어까지

### 눈 건강개선 특수 성분 8가지 함유

- 루테인 • 제아잔틴 • 빌베리 추출물 • 마키베리 추출물
- 포도씨 추출물 • 자색고구마 분말 • 은행잎 추출물 • 비타민 A

### 출시 기념 행사

아이클리어 구매 시 씨멜런스(\$39) 무료 증정  
같이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 일상생활에서 침침한 눈으로 자주 불편함을 느끼는 분
- 스마트폰, TV, 컴퓨터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
- 노화, 스트레스, 유전적인 요인으로 황반변성 위험도가 있는 분
- 사물을 바라볼 때 편안하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분
- 안구건조증 및 눈 노화의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
- 눈의 영양 공급이 필요한 어린이

888-941-3311 [umeken.com](http://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 금리론 기후플레이션 못 잡아... 공급 구조 개선으로 풀어야

'인플레이션'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방식에 새롭고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다. 폭염과 가뭄·홍수 등 이상 기후로 인해 농산물 생산이 줄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날씨가 물가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다. 실제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제일 곤혹스러운 점은 기후 변화가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금(金) 사과 등 치솟은 과일값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다. 금리 인하 시점을 저울질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물가가 고공 행진하면 통화 정책의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다.

있다. 전 세계 올리브유의 40%가량을 생산하는 스페인이 최근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며 올리브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다.

### 기후플레이션 자극할 '라니냐의 귀환'

기후플레이션과의 힘겨운 동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올여름이 북반구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CEI에 따르면 올해는 기록상 가장 무더운 해 '톱 5'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해보다 더더울 것 이란 전망은 61%에 이르는 것이다. 우드웰 기후연구센터의 선임 과학자 제니퍼 프랜시스 "올해 여름 미국 중부와 유럽에 극심한 폭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기후플레이션을 제대로 자극할 '라니냐(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의 귀환'까지 예상된다. 라니냐는 미국 중남부와 아르헨티나·브라질 등 주요 곡창지대에 가뭄을 야기할 수 있다. 대서양에는 허리케인 발생 우려가 커진다. 중국 남부 곡창지대에 홍수가 날 위험도 높아진다. 겨울철 북반구에는 한파를 몰고 올 수 있다. 밀(북반구)과 옥수수·대두(남반구)의 파종과 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생산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라니냐가 가져올 농산물 작황 부진과 그에 따른 가격 급등만큼 걱정스러운 부분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극심한 더위로 냉방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허리케인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원유 등의 공급난에, 가뭄으로 남미 지역의 수력 발전에 지장이 생길 경우 천연가스 등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늘어난 수요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씨티그룹은 "유럽과 아시아의 가스 가격이 50~60%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니냐발 한파는 에너지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가격 전가 효과도 낳는다. 최진영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겨울철 북반구의 라니냐발 한파는 냉방 수요를 강화해 천연가스 등의 전력원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대체 연료인 난방유까지 자극해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며 "산업 급속의 생산비용도 인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료로 하는 질소계 비료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 질소계 비료가 전체 시장의 58%를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들 비료를 사용하는 소맥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날씨가 뒤흔드는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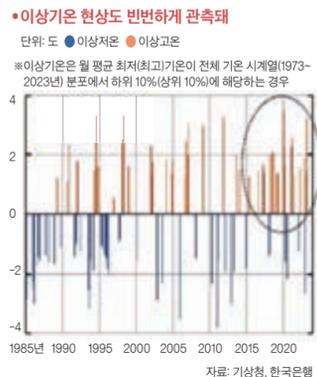
이상 기후로 인한 날씨의 이미 물가를 뒤흔드는 중이다. 미국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올해 1~4월은 175년 만에 가장 더웠다. 세계 곳곳의 폭염과 그에 따른 가뭄은 농산물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관련 식품의 가격도 들쭉이다. 그중 하나가 '초콜릿플레이션'이다.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것)의 가격은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1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코코아 가격이 치솟는 건 세계 코코아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의 극심한 가뭄 탓이다. 엘니뇨(적도 부근의 수온 급등 현상) 등 이상 기후의 영향이다. 국제코코아기구(ICCO)는 지난해와 올해 코코아 생산이 직전 2년보다 11%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커피 가격도 불안하다.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사용되는 로부스타 원두 가격도 1년 새 30% 넘게 올랐다. 엘니뇨 현상으로 로부스타 커피 최대 산지인 베트남(36.5%)의 가뭄 때문이다. 씨티그룹은 고급 원두인 아라비카커피는 앞으로 몇 달간 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슈가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생산이 줄며 설탕값은 20%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2·3위 수출국인 인도·태국의 가뭄과 1위 수출국인 브라질의 강우량이 적었던 탓이다.

올리브유 가격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분기 국제 올리브유 가격은 1만88달러로, 1년 전보다 80% 상승하며 분기 사상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4월에도 1년 전보다 44.7% 뛰



### 기후플레이션 자극하는 이상기후는 심화



### 글로벌 공급망 교란하는 이상 기후

기후플레이션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며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 양상은 다양하다. 기후에 민감한 분야나 영역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공급이 줄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상 기후로 물리적인 공급망 교란도 생길 수 있다. 가뭄으로 인해 강과 운하 등의 수위가 낮아져 수로 등을 이용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는 물류비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전 세계 물동량의 2.5%가량을 담당하는 파나마 운하는 지난해 가뭄에 따른 수량 부족으로 통항 선박 수를 제한했다. 태평양

### 이상기후로 치솟은 설탕·커피 값, 물가로 전가



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는 해수면보다 수위가 높은 고지대 수로를 갑문으로 연결하고, 가뭄 호수의 담수로 수위를 조절해 선박을 고지대로 옮기는 방식으로 배가 다닌다. 하지만 지난해 역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가뭄호의 수위가 낮아져 통항 선박 수를 줄였다. IMF는 "기후 관련 재해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며 "공급망과 인플레이션의 다이내믹에 대한 이상 기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플레이션의 영향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지구온난화와 폭염으로 식품 물가가 연간 최대 3.2%포인트, 전체 물가는 연간 최대 1.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121개국에서 30년간 집계한 월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날씨 데이터 총 2만 7000개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전 세계 연간 피해액은 약 19조~59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에 미칠 기후플레이션을 가능할 분석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18일 낸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2040년까지 국내 농산물 가격은 0.6~1.1%, 전체 물가는 0.3~0.6%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은행 기후리스크 연구협의체 NGFS의 '제4차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근거로 연중 평균 기온이 2019~2023년 13.2도에서 2040년 13.6~13.8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가장한 결과다. 한은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간접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기후 변화가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 "온난화로 국내 물가 0.3~0.6% 상승"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갈수록 세지는 기후플레이션의 기세를 꺾어야 한다. 문제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구사하는 금리를 통한 통화 정책이 기후플레이션에는 제대로 통하지 않는 데 있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높은 부정적인 기후 환경에서는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향후 2년간 물가 상승률은 0.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다고 분석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내놨다. 기온과 강수량 등 날씨 충격으로 인한 식품 가격 급등이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만, 근원 물가와 중기적인 물가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승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후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보다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8일 '상반기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과일 등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성 제고와 비축역량 확충, 수입선 확보 등 공급 채널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하현욱 논설위원

Care People Home Health

CarePeople.net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8 ~ 7/12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p>Centreville (Main Office)</p> <p>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p>	<p>Annandale (사랑방)</p> <p>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p>	<p>Annandale (V)</p> <p>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p>	<p>Richmond</p> <p>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p>	<p>Gaithersburg (MD)</p> <p>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p>
---	---	--	--	--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만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한국유심 \$45  
 유럽유심 \$50

미동부 투어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초고급 럭셔리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 \$2990+항공

31년 전통 탑여행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고국투어! 직접 모시고 갑니다.**

마감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마감임박 5차 10/22-11/1 (단풍특선)  
 6차 10/29~11/8

특선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모든 옵션 포함  
 여수 해상케이블카/외도+해금강유람선/정동진 레일바이크/서귀포 유람선

최고급 호텔 숙박  
 서울 롯데호텔/전주 한옥마을 라한호텔/여수 소노캄/거제 소노캄  
 부산 그랜드조선/경주 라한샬레트/속초 롯데리조트/제주 롯데호텔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롯데호텔 서울 소노캄 여수 소노캄 거제 롯데호텔 제주  
 라한샬레트 경주 롯데리조트 속초 그랜드 조선 부산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  
 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고품격 고국일주와  
 동남아, 일본 여행을 한번에!

다낭 3박+고국 7박 (노옵션) 3차 11/9-11/20 \$3090+항공  
 일본 3박+고국 7박 4차 11/12-11/23 \$3590+항공

연합상품

3박 4일 서남권 \$899+항공 일출발  
 4박 5일 동해권 \$999+항공 금출발  
 5박 6일 서남+제주 \$1499+항공 일출발  
 9박 10일 전국일주 \$2149+항공 일출발

3박 4일 동경 \$999+항공  
 3박 5일 오사카 \$999+항공  
 8박 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대강인박]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대강인박]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대강인박]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대강인박]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대강인박]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인박]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 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3~10/2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 11일 \$2990+항공 [대강인박]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대강인박]  
 10박 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대강인박]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 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대강인박]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 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외)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10박 11일 \$2990+항공 [대강인박]

10/29~11/08 산티아고 스페인 10박 11일 \$3590+항공  
 10/29~11/08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 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TMCI 고국 건강 검진**

•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남 \$555/여 \$595 미국국적 남 \$720/여 \$770  
 •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현대산업병원/서울대병원/가천대길병원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자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푸켓	하노이/하롱베이	다낭	대만	싱가폴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워포사원, 콜로세움, 파타야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황금절벽사원, 코끼리 트랙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위공원, 태국특산물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팡미안 해양국립공원, 아프로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알롱 사원, 코끼리 트랙킹	3박 5일 \$5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허롱데파코, 호치민명묘, 생할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 일요일 마블마운틴, 호이안, 투봉강, 일본내원고, 전가사당, 풍흥의집,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섀짜사원, 다낭대성당	3박 4일 \$690+항공 출발: 격주 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101빌딩, 라오후계 야시장, 서문정거리, 태로산행길, 화련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죽문화춘, 아류레앙 국립공원, 자우펀거리	3박 5일 \$790+항공 출발: 격주 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베이, 리버뷰데스, 헨드스웨이 브릿지, 허지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아연공원, 차이타운, 센토사섬, 실로스타비

**독립기념일 특선** happy 4th July

**뉴욕 불꽃놀이**  
 1박 2일 \$450  
 7월 4일 출발

**레치워스 나이아가라 왓킨스글렌**  
 2박 3일 \$699  
 7월 4일 출발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버스 트래블

**미동부 뉴욕·천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출발 3박 4일 \$899  
 대형버스출발: 7/22, 8/5, 10/14

**뉴욕 1박 2일 \$399**

**서부관광**

**탑여행사의 자랑 미서부**  
 서부의 주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일출발 \$1450+항공

성극 **대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7/25, 8/1, 9/19, 9/14, 10/17, 12/12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출발 2박 3일 \$650  
 대형버스출발: 7/22, 8/5, 9/23

**뉴욕 동부 명도 해안 관광**  
 단풍관광

**캠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단체여행 환영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주중), \$199(주말)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월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월출발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강민구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정청래는 “이재명 시대”

민주당 최고위, 연일 이대표 띄우기 여당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국회에선 ‘이재명 일극 체제’가 낳은 전례없는 현상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인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19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아버님이 지난주 소천하셨다. 아버님은 평생 이발사를 하며 자식을 무척이나 아껴주신 큰 기둥이었다”며 개인사를 전한 뒤 꺼낸 표현이다. 이어 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민주당의 동진(東進) 전략이 계속돼야 한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 대표가 총선 직후부터 영남 민주당의 발전과 전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당헌·당규 개정을 거론하며 “역사는 민주당의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해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고 발언한 강민구 최고위원. [뉴스1]

번 일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시대에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

힘 대변인은 “명사부일체’에 ‘명비어천가’ 수준”이라며 “‘1인 독재’ 이재명 사당이 된 민주당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도 검사 탄핵 분위기 조성에 열중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는 건 맞고, 제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안을 우선 마련하고,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 엄 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재판 도중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낸 것, 강 차장검사는 ‘윤석열 대통

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때 위법한 압수수색을 한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세 검사 모두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관련 있다”며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지난 달 30일 헌재에서 기각됐다. 고발 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점섭 검사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김승원 의원은 “기각 가능성이 크지만, 헌재 기류를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 ‘선거명당’에 캠프 차린 한동훈, 이르면 23일 대표출마 선언

국회 앞 대산빌딩에 사무실 계약 나경원 “한, 대선 뛰는 게 안 낫겠냐”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후보 등록을 닦새 앞둔 19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앞 대산빌딩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섰다. 대산빌딩은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캠프를 꾸렸던 곳으로 ‘선거명당’으로 불리는 곳이다. 당원 비중이 높은 선거인 만큼 국회 앞에 거점을 두고 체계적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택이다.



한동훈

출마 선언은 이르면 23일이다. 한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방식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며 “요란하지 않고 담백하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친한계 의원은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당권·대권 분리 조항 등 한 전 위원장이 답해야 할 사안도 출마 선언 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주중 출마 선언이 유력한 나경원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진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과 반한, 이런 것들과 과감히 결별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는 친

(親)도, 반(反)도 없었다. 오직 친(親)대한민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친윤계 지원을 받는 구도가 되느냐”의원 입장에서선 오히려 표를 갈아먹는 일”이란 분석이 나온다. 캠프에는 원내 대표 시절 원내수석으로 호흡을 맞췄던 정양석 전 의원이 합류한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변인을 맡는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정 관계”라며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당정 관계가 악화일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 역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19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앞 대산빌딩에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 [뉴스1]

주자들 사이 신경전과 세 걸집 경쟁도 시작됐다. 나 의원은 전날 5선 이상, 이날 3-4선 의원들과 차담을 했다. 한 전 위원장도 중진들과 대통령실 출

신 의원 등에게 직접 연락을 돌렸다고 한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kbc광주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지금 당 대표로 들어오시는 것보다 국민들 지지를 받으시면서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불출마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원외당원협의회는 처음으로 27일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선출한다. 원내대표에 대응하는 원외 대표를 내세우는 것이다. 한 원외당협 위원장은 “지구당 부활과 정당 개혁 등의 이슈로 여론을 결집해 전당대회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경기 고양병)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창훈·전민구 기자

## “대왕고래 프로젝트, 세계 최대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검증”

탐사데이터 열람, 투자도 검토 중 페트로나스 등 4곳도 관심 표현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연내 시추”

동해의 대규모 유전·가스전(이하 ‘대왕고래’) 개발 사업을 세계 최대 석유·가스 기업인 엑슨모빌이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가 지난해 12월 정부에 제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분석 결과에 대해 엑슨모빌이 검증 작업에 참여했다.

엑슨모빌은 한국석유공사가 축적해 놓은 대왕고래 물리탐사 데이터 등을 열람하며 투자 여부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엑슨모빌은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부사장급 임원까지 지낸 곳이기도 하다.

프로젝트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있게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데 엑슨모빌의 검증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엑슨모빌 외에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가스 기업인 페트로나스 등 메이저 업체 4곳도 윤 대통령이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난 3월 이



후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9일 “글로벌 메이저 석유회사 5곳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사는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로드쇼)를 열어 참여 기업을 늘릴 계획이다. 김 사장은 “(투자 기업 선정엔) 심해 경험·경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국내 투자에도 항상 오픈돼 있지만, 심해 경험이 많은 업체가 필요하기에 (국내 업체가) 메이저가 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조광료 요율이 최대 12%에 그쳐 해외 기업 투자를 받으면 국부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사장은 “예전엔 (자원 투자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 상대방에게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지금은 유망구조에 관심 있는 회사들이 있다 보니 이젠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 광권, 국부 유출 등 다양한 면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시점에 들어갈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개발 일정과 관련해 김 사장은 “2024년 심해 지역 1차 탐사시추를 개시하고, 2025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잔여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시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절차상으로 제도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해외 투자 유치 협상 단계로 가려면 빨라도 내년 중반이 될 공산이 크다. 올해 들어갈 첫 탐사시추는 해외 투자 없이 석유공사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나상현·김민중 기자

#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리관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페넌슐라 상담원영**

걱정도 많고, 궁극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걱정도 많고, 궁극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건강마을 Health Town

703-354-1515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6월 Special SALE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리툼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추천대상: 선천성 허약체질, 월경이상, 만성피로

김오곤 침향 녹용만 \$400 \$199.99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00 \$159.99

광동 침향환 20% Sale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함양여주환 당뇨잡는 도깨비 방망이 함양 여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FromBIO 위건강 마스크

medifree 코팅식이섬유 레벤플러스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Nutridom Collagen 저분자 고급 피쉬 콜라겐

영신 생 로얄제리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항암, 면역성 강화, 경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erbam 키즈10 이음 황성주생식

징크크린 정

농협 한삼인 10% SALE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강화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

세종 송보강 세종 속관한

공짜선물이 팡 팡! 황풍정 홍삼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umexen 우메켄 전제품 판매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홍화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당케어골드 식후 당 2알로 혈당 걱정 끝!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문경 오미자청 토종 오미자를 친환경 농법으로

유기농 국화차 향으로 맛으로 눈으로 즐기세요!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유기농 CBD 통증 크림 근육, 신경, 관절 통증에 최고

함수면 CBD + CBN 젤리 더이상 밤에 뒤척이지 마세요!

# 러, 북에 전략무기 기술 넘길 가능성... 글로벌 안보 혼돈다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  
푸틴 “안보리 대북제재 뜯어고쳐야”  
김정은에 ‘모스크바 회담’ 제안도  
김 “러시아 모든 정책 무조건 지지”

## ▶ 1번 ‘북·러회담’에서 이어집니다

푸틴의 발언으로 미뤄 사실상 자동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상호 원조를 제공하는 기준이 조약상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준’이 명시돼 있다는 것 자체가 조건 없이 군사적으로 참여하는 자동 개입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김정은은 언론 발표에서 ‘유사시 상호 지원’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의무 이행에 충실함에 있어서 어떤 사소한 해석상 차이에도 추호의 주저와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원했던 대로 조·소 동맹 수준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이라면 “사소한 해석상 차이”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협정문 전문을 봐야겠지만, 일방이 군사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지원을 하겠다는 언급이 있다”며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격상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군사 분야 협력 의지를 명확히 했다. 푸틴은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국의 침략적 대결적 정책 때문이며, 북한은 자주권 수호를 위해 합당한 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기술 협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사실상 옹호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이 원하는 정찰위성,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군사적 기술이전 가능성도 염포를 놓은 셈이다.

또 이번 조약 체결의 목적이 북한의 포탄 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사전 작업인 것처럼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다. 푸틴은 조약의 ‘무력 침공 시 상호 지원’ 부분을 설명한 뒤 곧이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최근 미국과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고정밀 장거리 무기체계, (미국의) F-16 전폭기와 다른 첨단 무기, 러시아 영토 공격용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틴은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는 (세계) 평화를 약화시키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회의 대북제재는 뜯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에게 “다음 회담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이번 조약을 “중대한 사변” “조로(북·러) 관계 발전의 분수령” “북·러 관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또 “위대한 조로동맹” “불패의 동맹” 등으로 북·러 관계를 치켜세웠는데, 이 자체가 북·중 간 혈맹을 의식한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제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보다 새롭게 동맹을 맺은 러시아가 더 중요한 상대라고 부각한 것일 수 있어서다. 이어 “세계의 전략적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 강력한 러시아 연방이 맡고 있는 중요한 사명과 역할을 평가한다. 우리는 러시아의 모든 정책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해 선물한 러시아산 리무진 ‘아우루스’ 운전대를 잡고 있다. ▶ 19일 금수산영빈관에서

## 중국 “북·러 교류,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야”

한·중 외교안보 대화서 우려 표명  
중국 공식 발표선 “관계 발전 필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중국은 19일 북·러 양국이 “정상적인 교류·협력과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러가 우호적인 가까운 이웃으로 교류·협력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정상적인 필요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러 정상 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이다. 린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련 고위층 교류는 두 주권국가 간 협의의 것”이라며 “중·한이 처음

으로 (18일 서울에서) 차관급 외교안보 대화를 한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필요에 착안해 일찍이 합의한 것으로 다른 나라 사이의 교류와 특별한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 시점에 맞춰 한·중이 서울에서 회동한 건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는 취지다.

그러나 중국 측의 이 같은 공식 반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속내를 놓고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8일 첫 차관급 한·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중국 측은 “북·러 간 교류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북·러 밀착에 대해 “양자 간의

“관계 발전은 환영한다”며 중립적 태도를 취했던 만큼 처음으로 사실상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중국 당국이 북·러의 불법 거래와 밀착에 대해 “역내 평화·안정 기여”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북·러 간 밀착을 경계하는 시선을 한국 외교부를 통해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중국 측 발언이 한국 측 보도자료에 포함된 건 중국도 공개를 묵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미묘하다. 통상 외교 회담 후 상대방의 발언을 전할 땐 최소한 상대방이 반대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박현주 기자

## 김정은과 10시간 이상 대화 방북 이어 베트남 국민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국민 방문을 종료했다고 타스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기 직전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배웅을 받았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떠난 정확한 시각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19일 오전 3시경 평양 공항에서 김 위원장과 만났다가 약 21시간 뒤 배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를 고려하면 푸틴 대통령은 20일 0시를 전후해 북한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향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19~20일 베트남을 국민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타스 통신은 수천 명이 평양 시내 중심가에서 공항으로 향하는 푸틴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향해 꽃과 깃발을 흔들었다고 전했다. 환송 인파는 20km 넘게 이어져 있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보도했다.

공항에도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로 향하는 레드카펫을 따라 수백 명이 줄서 있었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우정과 단결’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는 군악대

## 푸틴, ‘21시간 방북’ 마치고 김정은 배웅 속에 평양 떠나

###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는

임플란트 Implant

응급환자 Emergency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김정은 이례적 생중계 회견... 김일성 광장선 “푸틴” 환호

(정상회담 공동회견)



대정상회담을 하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2 이날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기다리는 김 위원장.

(타스-EPA=연합뉴스)

## 미국 “북한의 러시아 지원 차단위해 모든 일 할것”

백악관 “북-러 밀착, 한반도 평화 우려”  
외신 “외로운 브로맨스, 편이상 결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엔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상당한 양의 군수품과 무기를, 이란은 드론을 포함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우려되는 국가

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두고 “만약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강한 관심이 있다면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및 우크라이나 국민 지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트렌드”라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북-러 간 군사적 제휴와 협력 강화 등 일본을 둘러싼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졌다”면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동시에, 미국-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외신들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두 정상의 만남을 두고 ‘외로운 브로맨스(the lonely bromance)’ ‘편이상의 결혼(marriage of convenience)’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CNBC방송은 “양국이 상호 이익이 되는 전략적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정상 간 만남은 김정은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된 이벤트”였다고 전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서유진 기자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 푸틴 “안보리 대북제재 뜯어고쳐야” 김정은에 ‘모스크바 회담’ 제안도 김 “러시아 모든 정책 무조건 지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후 이례적으로 생중계 기자회견에 나섰다. “조로(북-러) 관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 탄생했다”고 자평하면서도, 준비된 원고를 읽는 그의 표정은 긴장감 짙은 지근어 있었다.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의 하이라이트는 이날 오후 6시15분쯤 이뤄진 공동언론발표였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이 다른 정상과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날 회견에선 푸틴이 먼저 발언하고 김정은의 발언이 이어졌다. 김정은은 9분 동안 시선을 연신 원고가 있는 아래로 깔거나 입을을 적시며 긴장된 모습이였다. 이날 확대회담에서도 김정은은 공개된 사진·영상에선 시종일관 진지한 표정이었다.

회담과 공동언론발표 이후 이어진 정상 간 단독 산책에선 분위기가 보다 풀린 모습이였다.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발표 등 무거운 짐을 털어낸 듯, 김정은은 푸틴과 나란히 걸으며 양측 통역만 든 채 화기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크렘린궁은 이날 양 정상의 대화내용 등 음성은 제거한 채 산책영상을 배포했다.

회담 이후 양 정상은 선물도 교환했다. 푸틴은 김정은에게 최고급 전용차인 ‘아우루스’, 차 세트, 단검을 선물했다고 타스통신은 보도했다. 푸틴은 지난 2월에도 아우루스를 선물했다. 2월에 이어 이번에도 사치품 및 운송수단 반입 금지라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 듯 위반했다. 이날 러시아 매체 스푸

트니크가 공개한 사진에는 김정은과 푸틴이 아우루스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탑승한 모습도 담겼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푸틴을 묘사한 예술품을 선물했다고 한다.

이날 정오쯤 푸틴이 24년 만에 발을 내디딘 평양 김일성광장은 러시아 국기, 형형색색의 꽃과 풍선을 든 수만 명의 주민으로 가득 찼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수많은 어린이까지 동원돼 두 독재자를 향해 박수갈채를 보내고 열렬히 손을 흔들며 환호했다. 김정은은 이후 확대회담에서 “오늘 보신 이 열렬한 환영 인파는 조로 현주소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과 푸틴은 나란히 의장대를 사열했다. 이어 레드카펫을 걸어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고위 간부와 악수했다. 두 정상은 또 벤츠 차량에 나란히 올라 김일성광장을 돌며 카퍼레이드도 했다. 두 정상이 통역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날 광장 주변 건물은 북-러 국기로 장식됐고 ‘조로친선’이라는 문구가 달린 애드벌룬도 등장했다. 광장 중앙에는 푸틴과 김정은의 초상화도 걸려 있었다. 이날 러시아 매체는 “평양에 푸틴의 초상화 수백 개가 걸렸다”고 전했다.

당초 전날 밤 도착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이날 새벽 2시45분 평양 순안공항에 푸틴이 도착했을 때 별다른 환영 없이 김정은은 혼자 푸틴을 맞아 바로 아우루스에 올라 속소까지 안내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푸틴이 24년 만의 방북에 지각하자 당초 예상됐던 환영 행사가 공항에선 생략됐던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공항과 김일성광장 환영식 모두에서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나 딸 김주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근평·박현주 기자

와 의장대의 환송을 받으며 이륙했고 배웅 나온 사람들은 이륙한 전용기를 향해 열렬히 손을 흔들었다.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총 10시간 이상 대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두 정상이 11시간 넘게 대화했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19일 정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국민 방문 일정을 시작

한 만큼 김 위원장과 거의 붙어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셈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두 정상이 최소 9시간 대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다.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에서 1시간 30분 이상, 비공식 일대일 회담에서 2시간 30분 이상 협상했고 공연 관람, 연회 등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며 북-러 관계를 격상시켰다.

이 협정은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북-러가 ‘동맹관계’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이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로이터]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우리말 바꾸기

‘한 끝 차이’는 없다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나 팀의 경기를 보며 마음을 졸여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응원하는 팀이 이길 듯 말 듯 애태우다 질 때가 있다. 그럴 때 “한 곳 차이로 져서 너무 아쉽다”고 말하곤 한다. 이처럼 ‘한 곳 차이’는 아슬아슬한 차이를 나타낼 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이다. 그런데 이를 막상 글로 적으면 ‘한 끝 차이’로 쓰는 사람이 많다.

‘한 곳 차이’를 ‘한 끝 차이’로 잘못 적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곳’이라는 단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곳’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곳’은 화투나 투전과 같은 노름 등에서 썸을 치는 점수를 나타내는 단위를 뜻한다. 즉 ‘곳’은 화투를 친 뒤 점수를 계산할 때 ‘한 곳, 두 곳, 세 곳...’과 같이 썸을 하기 위한 단위라 할 수 있다. ‘곳’이 점수를 세는 단위이므로 ‘한 곳 차이’는 승부를 가르는 점수 차이가 단 1점밖에 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매우 아쉬운 상황이나 아주 적은 차이를 나타낼 때 습관적으로 ‘한 곳 차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비슷한 현상은 “끝발 좋다”는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끝발 좋다” 대신 “끝발 좋다”고 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역시 ‘곳’과 ‘끝’을 구분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 할 수 있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엄마와 아빠의 차이는 111억불



진성철  
경제부 부장

지난 16일은 파더스데이였다. 가족과 함께 패서디나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한산했다. 전달의 마더스데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 때는 서둘러 3주 전에 예약했는데도 겨우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마더스데이를 위한 새 메뉴를 내놓는 식당도 많았다.

그러나 파더스데이에는 5일 전에 예약했음에도 쉽게 자리를 잡았다. 파더스데이 특별 메뉴를 선보인 식당도 마더스데이보다 턱없이 적었다. 아예 당일 점심에 문을 닫은 식당도 꽤 됐다.

한가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 사이의 인지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다. 매년 느끼는 거지만 이 특별한 두 기념일은 기사와 광고 숫자, 광고 디자인과 문구의 소구력, 소비 지출 규모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본지도 마더스데이 특집 섹션은 거의 매년 만들지만 파더스데이 섹션을 만든 기억은 거의 없다. 또 업체들의 본격적인 광고도 마더스데이 시즌에는 한 달 정도 전부터 시작되지만, 파더스데이의 광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온라인에서나마 볼 수 있을 정도다.

작년에 진행된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 광고들을 비교해보니 마더스데이 광고 디자인이 훨씬 예쁘고 눈에도 잘 띈다. 심지어 한 광고의 경우, ‘당신의 남편에게 멋진 선물’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에 반해 파더스데이 광고를 보니 ‘행복한 파더스데이 주말’이라는 문구가

전부였다. 아예 광고 문구에 담긴 메시지도 없다. 마치 못해 억지로 광고를 하는 것처럼...

마케팅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니 지난해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 소비자 예상 지출액의 차이가 111억 달러나 됐다.

전국소매협회(NRF)가 추산한 마더스데이 소비 지출 규모는 335억 달러(1인당 254.05달러)인데 비해, 파더스데이의 경우엔 224억 달러(1인당 189.81달러)에 불과했다.

또 올해 마더스데이를 기념하겠다는 응답률은 파더스데이의 75%보다 9%포인트가 높은 84%나 됐다.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의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에 대한 가설은 많다. 첫 번째가 역사적 격차다. 파더스데이는 마더스데이(1914년)가 연방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거의 60년이 지난 1972년이 돼서야 기념일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친밀감의 차이다. 자녀는 아들 이든 딸이든 모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

을 보내고 육아 또한 주로 엄마가 담당하기에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더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마더스데이를 더 챙기게 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과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다 보니 자녀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엄마를 더 챙기게 됐다는 가설이다. 이 밖에 문화적 편견이나 미디어와 기업의 상업용 목적에 의해 마더스데이가 더 주목받게 됐다는 가설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열거한 가설들이 모두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 아닐까 싶다.

아빠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파더스데이를 챙기는 자녀가 늘고 소비 지출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NRF의 연간 조사를 보면, 2014년 파더스데이 1인당 평균 소비 지출액은 113.80달러였지만 올해는 189.81달러로 67%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밀레니얼세대부터는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부쩍 눈에 띈다.

앞으로는 파더스데이를 챙기는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소비 지출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앞으로는 마더스데이 못지않게 파더스데이 마케팅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소매 업계의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한인 업계도 ‘파더스데이 특별 상품’이나 ‘파더스데이 특선 메뉴’를 선보이는 것은 어떨까.

J네트웍

주민에게 후자산 조망권 돌려준 어떤 건설사



정원석  
도쿄 특파원

지난 한 주간 일문을 떠들썩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다. 도쿄에서 서쪽으로 차로 40~50분 떨어진 구니타치시(国立市)에 있는 신축 맨션을 철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다. 후자산이 보이는 거리(富士見通り)로 잘 알려진 구니타치시는 도쿄도 절경 100선에도 꼽힌 곳이다. 이곳에 새 건물이 들어선 뒤 후자산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건설사가 자진하여 이를 해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다 지은 건물을, 그것도 계약자에게 양도를 한 달 앞두고 왜 철거한다는 건지 궁금했다. 문제의 맨션을 찾아가 보니 10층짜리 1개 동 건물이었다. 주변에는 이보다 더 큰 맨션도 있었고, 반대 움직임이 다른 건물보다 유독 컸던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주민들은 철거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는 분위기였다. 작곡 전 거리 사진을 보면 주민 반발은 이해할 만했다. 구니타치기차역부터 변화가 후자산 방향으로 죽 뻗어 있고, 그 길을 오가며 바라보는 후자산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었으리라.

새로 들어선 건물은 후자산의 절반쯤을 가리고 있었다. 후자산을 가린 건물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자 맨션을 지은 세키스이하우스(積水ハウス) 측이 곧바로 철거를 결정했다. 세키스이하우스는 일본에서 대형 건설사로 꼽힌다. 애초 주민협의회측은 4층 이하로 지을 것을 요구했지만, 11층으로 계획했던 건물을 10층으로 딱 1개 층 낮추는 선에서 건축허가가 났다.

사실 업체 입장에선 소송이 벌어져도 그다지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20여 년 전에도 맨션

건설사를 상대로 주민들이 높이를 낮추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은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손해를 감내하고 철거하기로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현지 매체들은 부정적인 여론으로 회사 이미지가 손상당하는 게 더 큰 손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쨌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조망권의 승리인 셈이다.

20여년 전 구니타치시 주민들은 패소했지만 법적 이징표를 세웠다. 당시 판결에선 경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인정했는데, 이는 2005년 ‘경관법’의 전면 시행으로 이어졌다. 각 지자체가 건축주를 상대로 건물의 높이나 외관 등에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우리나라에선 조망권을 부동산의 가치로만 따지는 편에 익숙하지만, 사실 경관이나 조망은 누구에게나 허락돼야 할 보편적인 자산이란 점을 되새기게 한다. 한강을 병풍처럼 에워싼 아파트 단지들에서 언급되는 ‘한국식 조망권’에 위화감이 드는 이유다.

**김철민**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빌딩 3층**

**마이클 장**

맞춤 융자의 달인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 “아버지 편지에 충격 받았다”... 내가 작가가 된 이유

**이문열, 시대를 쓰다(9)**  
**피·기질·환경·사랑 그리고 소설**

“무엇이 한 어린 영혼을 들쭉서, 말과 글의 비실제적 효용에 대한 매혹을 기르고,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모방의 열정과 그 허망한 성취에 대한 동경으로 들뜨게 한 것일까. 스스로의 문학적 재능에 대한 과장된 절망과 또 그만큼의 터무니없는 확신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소중한 젊은 날을 탕진하게 한 뒤, 마침내는 별 가망 없는 언어의 장인(匠人)이 되어 남은 긴 세월 스스로를 물어 뜯으며 살아가게 만든 것일까.”

1991년 내 산문집 『사색』에 수록된 ‘피·기질·환경·사랑 그리고 소설’이라는 글의 첫머리다. 서른 넘어 문단 말석에 이름을 얹은 후 나는 술하게 저 질문에 시달렸다. 어쩌다 말과 글을 평생의 도구로 선택하게 됐나. 왜 작가가 됐느냐는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막막했다. 투입과 산출의 균형이 현저하게 깨져 있는 감정적 생산을 어쩌다 나의 일로 결정하게 됐는지. 젊은 날 대면했어야 했던 질문을 지나쳐 버린 나는 작가가 된 후에도 그 대답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곤 했다.

“피·기질·환경·사랑 그리고 소설”은 제목대로 그 답을 피나 기질, 환경, 사랑 같은 것들에서 찾아보려 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글 쓰면서 살면 좋겠다 말해”  
 피나 기질은 아버지나 문종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생전 어머니(95년 작고)에 따르면 사회주의자였던 아버지는 월북하기 전 ‘나중에 세상이 좋아지면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더 해 글이나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혁명 투쟁에 관한 장엄한 서사시를 쓰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

87년 조총련 출신 고향 친지를 통해 전해 받은, 북한의 아버지가 보낸 편지는 그런 문학에의 경사(傾斜)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글이었다. “아직도 조국은 나에게 실존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영향을 받은 듯한, 아버지 편지의 한 구절에서 받은 충격과 감동이 아직도 기억난다. 직계 조상들이 남긴 부피 큰 문집(文集)들 역시 물려받은 기질의 영향을 따져보게 한다. 성급하게 세상을 떠난 나의 큰형 또한 한때 시인 지망생이었다. 큰형이 남긴 필사(筆寫) 시집에서는 어설플 소월풍(素月風)이 느껴진다.

가장 부재, 그로 인해 한 파산(破産)에서 또 다른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불안정한 환경 또한



경기도 이천 자택 서재의 이문열씨. 이씨는 1980년대 후반 이전에 작업실을 마련해 서울에서 내려왔다. 젊은 날 그에게 소설 쓰기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잇는 방편이었다. [중앙포토]

“아직도 조국은 나에게 실존이다”  
 북의 아버지가 보낸 글 문학생 뚜렷 세상 떠난 큰형도 시인 지망생  
 피·기질 영향 무시할 수 없는 듯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계기의 하나였을 것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신 책을 읽거나 몽상에 잠길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이었다.

가슴속에 오래 살아남은 첫사랑이나, 삼시간에 타올랐다가 빠르게 사그라져버린 불같은 사랑의 추억도 내가 작가가 된 원인의 하나로 꼽아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의 경험이 곧 작가를 길러내는 것이라면 세상은 시인과 작가로 넘쳐나지 않았나.

직업 작가로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 품었던 것은 69년 서울시대 문학회 활동을 할 때였다. 60년대 후반 서울대 캠퍼스는 무척이나 여수선한 상황이었다. 6·3항쟁(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에 나선던 이념 서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가 67년 공안 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은 뒤 움츠러들었던 운동권 학생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69년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 반대 데모에 나서서 때였다.

자전적 장편 『젊은날의 초상』에서 그랬던 대로, 세 살친구 가운데 나보다 서너 살 위였던 김태일 형의 권유에 따라 노가(哥, 소설에서는 하가)와 나는 사대 문학회에 가입하게 된다. 회원이 20~30명 정도 됐다. ‘장작시대’라는 회지도 발간했다. 시인 장영수와 유자호, 비평하는 김재홍, 희곡을 쓴다는 김한영이 당시 함께 활동했던 회원이었다.

200자 원고지 60쪽 분량의 ‘역(驛)의 의미’라는 단편을 급하게 써서 합평회에서 발표했다. 등

단 후 81년 소설집 『어둠의 그늘』에 ‘이 황량한 역(驛)에서’라는 제목으로 수록한 작품이다. 합평회에는 50명가량 참석했던 것 같다. 작품을 통독(通讀)하는데 45분쯤 걸렸을 것이다. 읽는 내내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읽기를 마치자 ‘악~’ 하면서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느껴졌다.

아이들에게 내 소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이다. M이라는 지방 소읍(小邑)의 기차 역사를 배경으로, 아버지가 없는 소년과 나이 든 외팔이 검차원의 우정을 통해 만남과 이별, 떠남으로 점철된 인생의 의미를 건드린 작품이다. 서울대생들이라고 해봐야 변변한 인생 경험이 있었겠나. 김태일 형조차도 “이걸 현대문학에 보내야 돼? 아니면 어디로 보내야 돼?”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갈채, 그 갈채의 달콤함. 글을 써서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아니었던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맞은 성취의 기쁨이었다. 정신이 멍해질 정도였다. 내 안에 강한 자기현시(顯示) 욕구나 갈채에 쉽게 도취되는 특성, 문사적인 기질이 있음도 그때 알아차렸던 것 같다.

1970년 일기엔 “작가로 끝장 볼 조짐”  
 내 문학열은 불붙었다. 69년 한 해 나는 열 편 넘는 단편과 한 편의 장편을 썼다. 사법시험에 도전한다는 핑계로

직업 작가 생각 처음 품었던 건  
 69년 서울시대 문학회 활동 때  
 ‘역의 의미’ 단편 읽자 갈채 쏟아져  
 인생에서 처음 맞은 성취의 기쁨

1970년 1월 학교를 영영 떠나면서 일기장에 나는 이런 문장을 썼다.

“내가 이윽고 한 작가로 끝장을 보게 되고 말리라는 조짐은 일찍이 내 인생 도처에서 보여져 왔다. 내게 재능이 있었던 것인지, 노력해서 그리워졌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반면에서는 언제나 상당한 결과를 얻어내는 데 실패한 적이 없다. 내가 숙명적으로 작가가 되리라는 예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합평회의 갈채가 표면적인 계기였지만 그 전부터 내 의식의 밑바닥에는 장차 글을 쓰며 살게 되리라는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다. 알 수 없는 것은, 그런 일기를 써놓고도 나는 그 운명을 거부하는 싸움에 많은 시간을 쏟곤 했다는 점이다.

문학은 세상의 고통이나 결핍의 해결과는 무관해 보였다. 역사의 무대에서 어릿광대나 조연 역할을 할 뿐이었다. 나는 반문학(反文學)의 이론을 무성하게 짜 맞추곤 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온갖 지식이나 깊이 있는 정신, 아름다운 문장을 만나면 탐욕을 부리는 모순

에 빠져 있었다. 길 떠난 나그네가 고향 집을 그리워하듯, 새롭게 나선 길에서 작은 좌절의 징후만 보여도 나는 참회라도 하듯 떠났던 말과 글의 세계를 떠올렸고, 무슨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그 세계로 되돌아오는 했다.

왜 작가가 됐느냐는 질문은 결국 왜 쓰느냐는 질문과 같은 것일 게다. 작고한 문학평론가 홍정선과의 대담(1992년 문예중앙 봄호)에서 나는 “당장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 쓴다”고 말한 적이 있다. 글을 쓰기 위해 삶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상기하는 데서 오는 고통보다, 글 쓰는 행위 자체를 통해 잊어버리는 고통의 양이 훨씬 많다는 뜻이었다.

“소설이 존재하니 쓴다”는 최인훈에 충격  
 소설가 최인훈 선생께 곤혹스러움을 털어놓은 적도 있다. 한 잡지에서 마련한 대담에서다. 소설을 왜 쓰시느냐고 물었더니 선생의 답은 이런 것이었다.

“그걸 왜 내가 대답해야 하나? 소설이란 내가 창안한 것도 아니고, 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면 몇 세기나 존속해 오지도 않았을 걸세. 나는 이미 가치를 승인받고 존속되어 온 소설이란 문화적 제도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한가.”

나보다 열두 살이 많은 최인훈 선생은 나를 두 번이나 뽑아준 분이다. 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와 민음사의 오늘의 작가상 모두 선생이 심사위원이었다. 나를 각별하게 대한다고 느꼈다.

그런 선생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간명하고 단순한 논리라고 할까. 그래서 한동안 나는 산이 있어 오르든 등반가처럼 소설이라는 문학 양식이 존재하니까 쓴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 마흔을 넘으면서 소설이 존재하니까 쓴다는 답은 성의 없이 들릴 것 같았다. 저것보다는 이것이 덜 싫어서 쓴다는 ‘소극적 선택’,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최우선의 독자로서 삼아 자기만족이라는 기준에 따라 소설을 쓴다는 ‘사인성(私人性)’의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끔찍한 책 장례식을 겪을 무렵부터 그동안 문학으로부터 분해된 내 마음을 갈아엎는 의미에서 ‘공리적 실용’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게 됐다. 그런데 문학은 어쩔 수 없이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 연결에 있어서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 한계의 마지막이 어디인지, 독자의 삶과 무관하지 않으면서 덜 억압적인 어떤 경계를 찾고 싶다는 것이 최근의 내 생각이었다.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nt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http://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6월 HOT 리스팅

###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 집니다.

##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비엔나 타운홈**  
방3+와3+차고2  
2001년, 2100sf  
켈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로보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와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와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시 설**

**북·러 정상의 ‘위험한 거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 동맹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와 확대회담 및 단독회담을 한 뒤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소련이 냉전시대의 1961년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러시아가 대북제재 허물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국제사회는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위험한 거래’로 주시해 왔다. 그런데 밀착을 넘어

**북·러, 한쪽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동맹 선언  
군사 위협 가능성, 철저한 안보 대비 태세를**

군사 분야에서 한몫처럼 대응하고, 군사기술 협력에 나서겠다고 대놓고 시위에 나서며 우려가 현실이 됐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우려가 커졌다.

그뿐이 아니다.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군사·경제·우주·철도 분야의 협력을 약속하며 보란 듯이 밀착을 과시했다. 노골적으로 대북제재 와해에 나서려는 동시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뒷거래를 늘리는 ‘그들만의 리그’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말 한국과 ‘남남’을 선언한 북한이 어제 러시

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건 예상일이 아니다. 북한은 6·25전쟁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모스크바를 찾아 소련의 군사 지원을 받은 역사가 있다. 김 위원장 역시 2019년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각각 대규격 방사포를 비롯한 단거리 미사일을 13차례 발사하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에 장벽을 쌓고, 전술도로를 건설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북한이 이번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하반기의 당 전원회의에서 공세적 정책을 결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말로만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이 아니라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김 위원장은 어제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새로운 변영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쟁과 핵·미사일 개발에 전력하고 있는 북·러의 자칭 ‘변영’은 국제사회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다. 김 위원장은 어제 새벽 수행원 없이 공항에 나가 ‘나홀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 장면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처지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 북잡다변한 그물망 국제사회에서 독불장군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다. 두 나라의 밀착이 무기 거래 등 ‘불량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둘의 고립만 가중될 뿐이다.

**‘선택과 집중’ 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정부가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예고한 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처음 내놓은 대책이다. 새 대책의 특징은 각 정부부처의 사업 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온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또 저출생과 직접 관련된 예산의 87%가 양육에 집중된 것을 점차 일·가정 양립 쪽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정책 과제를 발굴한 점은 긍정적이다. 소득 제한 없는 지원, 출산·육아휴가 미결재 시 자동 승인 간주, 단기 육아휴직, 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하면 넓은 평수 이사 보장 등의 정책이 이런 과정을 통해 도출됐다.

그러나 저고위의 다짐처럼 이번 대책이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 계기가 되기에 부족한 점도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출산의 가장 큰 장벽인 일·가정 양립이 현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휴가 기간을 늘리고 휴가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은 출산 결심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실제 일터에선 출산과 육아휴가로 인한 공백을 인력 보충 없이 동료들이 나눠 부담하는 게 현실이다.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휴가 사각지대도 넓다. 선진국 최고 수준

인 근로시간은 잘 줄지 않고, 가정에선 여전히 남성의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이 세계 꼴찌다. 이런 현실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경쟁을 완화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러 분야에서 수도권의 경쟁이 가장 치열하지만 수도권 도시들의 출산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미 통계를 통해 입증됐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런 구조적 대책은 모두 장기 과제로 돌렸다. 그래서 “여전히 출산과 복지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가 나온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출산 장려와 가족 친화적 정책에서 모범국인 핀란드도 합계출산율이 매년 최저치를 경신해 심각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우리만큼 최악은 아니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인구 감소 방어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일방적인 출산 독려만으론 한계에 달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시각을 좀 더 넓혀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정한 인구 수준을 절대적인 목표로 놓을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인구 상황에서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에 대한 정책도 함께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새겨들기 바란다.

**언론이 애완견이 아닌 이유**

**김현기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1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기자 보고 애완견이라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첫째, 대다수 기자는 애완견처럼 상냥하지 못하다. 먹 을 걸 줄 때 기빠서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주인(윗사람)이 와도 달려가지 않는다. 오히려 좀 까칠하다. 둘째, 애완견처럼 절대적 순종을 하지 않는다. 주인이 뭘 주면 다 받아먹지 않고, 일단 의심한다. 대들 때는 대든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짖는 게 아니라 불의에 화가 나 짖는다. 셋째, 애완견처럼 큰 사랑과 보호 속에 자라지 않는다. 사랑 대신 데스크와 선배들의 꾸지람을 들으며 성장한다. 보호 대신 늘 치열한 현장 속에서 평가받는다. 팩트 하나 틀렸다면 그 여파가 몇 년은 간다. 넷째, 애완견과 달리 사람들은 기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직업적 특성으로 귀찮고, 까다롭고, 질문이 많다. 뭐 그런 식이다. 하루 두세 끼 꼬박 챙겨먹는 것 빼고 애완견과 기자 사이에 그다지 공통점이 없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언론=애완견’이라 말한 건 틀렸다. 대다수 기자는 애완견이 될 수 없다. 이 대표 표현을 빌리자면 “왜곡이자 조작”이다.

#2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언론을 굳이 애완견에 비유했을까. 나는 이 대표의 언론관이 애초부터 삐뚤어져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게 2018년 6월 경기지사 선거일의 발언이다. 당선이 확실해진 이 대표는 각 방송사의 인터뷰에 응했다. 여배우와의 스캔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외쳤다. “대변인!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엉뚱한 질문을 자주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인터뷰 취소야.” 급기야 MBC와의 인터뷰 때 이 대표는 돌연 이어폰을 빼 던져버렸다. 당시 그 영상을 보며 1년 반 전인 2017년 1월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첫 기자회견장을 떠올렸다. 트럼프는 CNN을 지목해 “수치스럽다” “실패한 쓰레기 데미” 등의 악담을 퍼부었다. 질문하려는 CNN 기자를 향해선 “당신네 회사는 끔찍하다. 조용히 있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남세 자료 공개를 요구한 NBC

기자에겐 “기자들만 유일하게 나의 남세 자료에 관심이 있다”고 조롱했다. 기자회견 후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한 “트럼프의 첫 기자회견은 그의 정치 이력을 잘 말해 주는 혼돈과 허세의 장이었다”는 기사가 아직 기억에 생생하다. 난 이 대표나 트럼프가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한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x소리’로 취급한다. 겸언유착 프레임 짜기가 주특기다. 야당인데도 이런데 집권 여당이 되면 어떨까.

#3 이 대표는 발언 나흘 만에 “언론 전체의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물러섰다. 그러곤 또 다시 자신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늘 이런 식이다.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다. 왜 사과에 ‘했다면’ ‘였다면’이란 가정이 필요한가. “언론 전체의 비판으로 오해하게 해 유감이다”고 깔끔하게 잘

**언론은 순종 않고 보호받지도 않아  
이 대표의 뼈뼌이 언론관이 문제  
손타령 달 타령 말고 깔끔 사과하길**

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치고 빠지기란 비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또 위치독(감시견), 랩독(애완견), 가드독(경비견)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다. 그런 용어를 모르는 언론인은 없다. 오히려 잘 모르는 이들이 자주 그런 표현을 쓴다. 문제는 그런 용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제1당 대표가 언론 전체를 향해 비하와 폄훼의 뜻을 담아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대표가 이날 애완견 대신 인용한 ‘앵무새’라는 용어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발언의 본질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4년 전 야당(현 여당)을 향해 했던 말을 이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 “손가락이 예뻐야 달을 쳐다보든지, 맞든지 하지 손가락에 심술이 더더더덕 붙었는데 어찌 달을 보냐. 나쁜 손 때문에 오히려 달을 볼 수 없다. 손타령 달 타령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시라.”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a href="http://www.joongang.co.kr">http://www.joongang.co.kr</a> 광고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a href="http://ad.joongang.co.kr">http://ad.joongang.co.kr</a>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a href="mailto:sarangbang@joongang.co.kr">sarangbang@joongang.co.kr</a>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본사 인쇄: (주)한성신문사 |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 1부 1,000원

워싱턴 중앙일보

#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지  
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교통사고 치료 전문



#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http://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mailto: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64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 인플레이션을

#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JUN. 20th - JUN. 27th, 2024

## 삼양 불닭 볶음면



# 화끈하게 매운세일

화끈한 정통 오리지널 불닭 볶음면 • 두배 더 매운 핵 불닭 볶음면  
SAMYANG BULDAK RAMEN (ORIGINAL / 2X HOT)

## BULDAK RAMEN



### BUY 1 GET 1 FREE

# \$7.99

5X140 G

GRAND OPENING: Richmond, VA (7801 W Broad St, Richmond, VA 23294); Sterling, VA (35 Pigeon Hill Dr, Sterling, VA 20155); Centerville, VA (3000 Centerville Oval Ln, Centerville, VA 20121); Chantilly, VA (13655 Montebello Dr, Chantilly, VA 20151); Annandale, VA (1204 Fort Ridge Rd, Springfield, VA 22151); Ashburn, VA (43630 Fairwood Hunt Place, Ashburn, VA 20147); Herndon, VA (400 Baker Street, Herndon, VA 20170); Elliott City, MD (89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ott City, MD 21040); Catonsville, MD (1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Rockville, MD (1302 Winkler Rd, Rockville, MD 20851);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판매 중 오missions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시장에 따라 조기종료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June 20,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 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 Inc.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 “주거비, 소득 25% 넘지 않아야 안전”

홈오너, 주택 소유위해 얼마나 쓰나

1분기 집값과 주택 구입 가능성은 작년보다는 소폭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임금 근로자들에게 주택 구입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데이터 사이트 아톰 (ATTOM)의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 전국 집값의 97.8%가 임금 근로자가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분기 99% 수준보다는 하락한 것이지만 2021년 1분기 대비 10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또 하버드대학의 최근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면 향후 10년간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내집 장만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 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입 시 고려사항을 알아봤다.



미 전국에서 지역 평균 임금 대비 주택 소유 비용이 높은 지역 중 한 곳인 LA시의 다운타운 인근 전경. (unsplash.com 제공)

용자상환, 재산세, 보험료, 관리비 등 전국 평균급여 32.3%인 1930불 지출

▶현황  
지난 3월 말 아톰이 발표한 올해 1분기 미국 주택 구입 가능성 보고서(U.S. Home Affordability Report)에 따르면 미 전국 근로자들의 주택 소유는 지난해에 이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주택 중간값을 놓고 봤을 때 전국 평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려면 소득의 32.3%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35% 수준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출 기관의 일반적인 대출 기준인 소득대비 용자 비율인 28%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조사 지역인 전국 590개 카운티 중 72%에서 주거비로 임금을 28% 이상을 지불해야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년 대비 전국 평균 임금은 3% 포인트 상승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집값을 감당하기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주

택 소유자가 모기지 대출 상환금 및 주택 보험료, 재산세 등 주거비로 월평균 1930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사상 처음 2000달러를 넘어선 3분기 2053달러보다는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전국저소득층주택연합(NLIHC)은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를 비롯해 보험금, 재산세 등 주거비에 지출하는 가구를 하우스 푸어(house poor)로 간주했는데 1930달러를 1년치로 계산하면 전국 연 평균 소득 7만1708달러의 32.3%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니어 현황  
지난해 말 하버드대학이 발표한 미국 시니어 주거 현황 보고서 (Housing America's Older Adults 2023)에 따르면 렌트비와 모기지 상환 등 주거비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시니어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 인구가 2012년 4300만명에서 2022년 5800만명을 기록해 10년 새 34%나 증가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2040년에는 80세 이상 인구가 1700만에 이를 전망이다.  
시니어들의 주거비 부담이 몇 년 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소득은 동일한데 지난 몇 년 간 관리비, 렌트비 상승 등으로 주거비가 큰 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시니어는 2016년 970만명이었던데 비해 2021년엔 11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시니어 세입자들 중 56%, 약 전국 400만 가구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홈오너의 경우 26%가 소득의 30%를 대출금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 또 지난해 65~79세 홈오너 40%가 모기지 대출금을 상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80세 이상 주택 소유자도 전체 주택 소유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기지 대출 상환금, 보험료, HOA관리비 등 주거비에 소요되는 월 페이먼트가 급여의 25%를 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만약 주거비로 2000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면 세후 월 소득이 8000달러, 연간 9만 6000달러는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소득 대비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급격하게 하락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구입을 하려면 일단 기대치를 재설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만약 3~4베드룸을 계획했다면 방 개수를 줄이거나 뒷마당을 포기하고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고려할 수 있다.  
또 특정 지역을 고집하기보다는 검색 범위를 넓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도 방법.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b>스시 식당</b> 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	<b>버지니아 상가건물</b> 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익 \$218,000	<b>디시 유명 델리</b> 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임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	<b>Beer &amp; Wine Shop</b>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	<b>상가</b> 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
<b>식당 자리</b> 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	<b>단독 건물</b> 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	<b>사무실</b> 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	<b>Beer &amp; Wine Shop</b> 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	<b>상가</b> 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익 52만불, 8백만불
<b>창고</b> 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트, 버지니아	<b>사무실</b> 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	<b>콘도</b> 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웨그맨옆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	<b>상가</b> 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	<b>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b>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렌딩 서비스    703.928.5990 **승경호**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체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k@dwellwashington.com



# 헛갈리는 한·미 '쌍둥이 ETF' ... 세금·보수는 안 닮았네



상장지수펀드(ETF) 전성시대다. 한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856종목, 자산총액은 141조원에 달한다(지난 4월 말 기준). 이 중에서 구성 종목에 해외주식을 담은 ETF는 243개로 30%에 달한다. 자산총액(32조2018억원)은 1년 만에 61%나 늘었다. 해외주식 ETF가 급증한 건 2022년 무렵부터다. 코로나 19 이후 '서학개미'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한국내 자산운용사들은 앞다퉀 미국에 상장된 ETF를 모방해 한국내에 출시했다. 미국 '원조 ETF'와 한국내에 상장된 '한국판 ETF' 중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쏟아지는 쌍둥이 ETF들을 꼼꼼히 비교해 봤다.

S&P500 지수 추종 미국 ETF vs 한국판 ETF 수익률 추정

총보수비율 (TER, %)	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미국	VANGUARD S&P500(VOO)				
0.0300	-0.04	7.94	26.58	29.78	35.60
미국	ISHARES CORE S&P500(IVV)				
0.0300	-0.04	7.94	26.57	29.78	35.59
미국	SPDR S&P500 ETF TRUST(SPY)				
0.0945	-0.04	7.92	26.50	29.64	35.44
한국	KODEX 미국S&P500TR				
0.0798	-0.06	7.83	26.40	29.34	34.60

※ 4월 30일 수정기준(원화환산) 기준. 자료: 삼성자산운용

KBSTAR 미국반도체NYSE

ACE 미국나스닥100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 미국S&P500

SOXX

QQQM

SCHD

SPY

'한국판 000'이라고 불리는 ETF는 대부분 기초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ETF다.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미국 ETF와 한국내 상장 ETF의 수익률도 거의 비슷할 것 같다. 하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변수가 누적되면서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첫 번째 변수는 운용사 보수다. 예를 들어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총보수비용비율(TER, 순자산 중 보수+기타비용 비율)을 보면 KODEX(삼성자산운용)는 0.0798%, TIGER(미래에셋증권)는 0.14%, KBSTAR(KB자산운용)는 0.098%, ACE(한국투자신탁운용)는 0.136% 등으로 모두 다르다. 산술적으로 1000만원을 투자할 때 1년간 비용은 TIGER가 1만4000원, KODEX가 7980원으로 차이는 약 6000원 정도지만, 10년 동안 투자한다면 17만4000원과 9만8337원으로 7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보수는 종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한국내 ETF보다 규모가 훨씬 큰 미국 ETF의 보수가 싼 경우가 많다. S&P500을 추종하는 미국의 대표적 ETF인 SPY·IVV·VOO의 수익률과 '한국판 SPY' 중 가장 보수가 저렴한 'KODEX 미국 S&P500TR' 수익률을 시뮬레이션해 봤다. 배당은 모두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때 단기적으로는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2년간 수익률은 보수가 낮은 IVV와 VOO가 KODEX 상품보다 1%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하지만 미국 ETF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보수와 별개로 들어가는 다른 환전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승현 한국투신운용 ETF컨설팅담당은 "한국내 상장 해외ETF에 투자할 때 환전 수수료가 거의 들지 않지만, 개인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미국 ETF를 살 때 매수·매도할 때마다 무시할 수 없는 환전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마다 환전 수수료가 다르지만 통상 환율 스프레드가 1%라면 환전우대 50%를 받는다고 해도 0.5% 정도를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달러를 보유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미국 ETF를 사고팔 때 합쳐서 1~2% 정도 수수료만큼 손해를 안고 가는 셈"이라고 했다.

미국 ETF와 똑같은 한국내 상장 ETF인데 가격 등락폭에 눈에 띄게 차이가 날 때도 있다. '과리율'이 커질 때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지수가 오르내리는 만큼 시장 가격도 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나스닥100 지수가 1% 오르면 ETF의 순자산 가치(NAV)도 1% 오르고, 이론적으로 가격도 1% 오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순자산가치와 가격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를 과리율이라고 한다. 과리율이 0보다 크면 장중(실시간) 순자산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고, 0보다 작으면 낮게 거래된단 뜻이다. 과리율은 장중 가격과 순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달라진다. 과리율이 3%일 때 ETF를 매수했다면 실제 지수에 따른 가치보다 3% 더 비싸게 샀다는 의미가 된다.

S&P500이나 나스닥100 등 미국 지수를 따르는 ETF의 경우 미국 원조 ETF는 과리율이 0에 가까운 반면, 한국내 ETF들은 과리율이 더 크게 나타난다. 한국내 ETF의 과리율은 대부분 시차 때문에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판 나스닥100 ETF들이 추종하는 나스닥100 지수는 새벽에 미국 증시가 마감되면서 고정된다. 한국 장이 열린 시간에 이들 ETF 가격이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나스닥100 선물 가격 등락률이 가격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거래에 더 주의해야 할 때도 있다. 미국은 휴장일인데 한국은 개장할 경우다. 한국과의 거래일 차이가 더 벌어지는 만큼 미국 지수를 따르는 한국내 ETF의 과리율도 커질 수 있다. 중국·홍콩 주식을 담은 ETF도 한국과 개장 시간 차에 따른 과리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리율은 거래량이 적은 ETF에서 높게 나타날 우려가 크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커지면 시장가격이 ETF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많은 상품이라면 대부분 평균 과리율이 1% 미만으로 유지되지만, ETF 매수·매도 전에 증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 정보창을 통해 과리율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세금 차이도 따져봐야 한다.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면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 이익부터는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한국내 상장 해외ETF는 매매이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양쪽을 비교해 보면 연간 수익이 833만원보다 낮을 때는 미국 ETF 세금이 적지만, 833만원을 넘기면 한국내 상장 해외ETF의 세금이 적어진다.

해외 ETF는 여러 주식, ETF의 손익 통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SPY ETF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났어도 테슬라 주식에서 800만원 손실이 났다면 매매차익이 200만원이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해외 ETF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해외 주식, ETF 매매차익의 22%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

반면에 한국내 상장 해외ETF의 경우 손익 통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손실이 났어도 매매이익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분리과세도 적용되지 않아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처럼 과세 측면에선 한국내 상장 해외ETF가 불리해 보인다. 하지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불리함이 사라진다. 손익 통산을 해결 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이나 배당 /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1,11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레스틴 콘도**

**\$426,000**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로턴 타운홈**

**\$580,000**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고급가구 Moving Sale 합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축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전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플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첼트리 지역]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 가격, 급등 막으려면

# 금리 인하·부동산 정책 완화 신중하게 추진해야



선거 때마다 '가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달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875원짜리 '대과 가격'이 민심의 향배에 큰 영향을 미쳤다. 2년 전 대통령 선거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승패를 가른 요인으로 꼽힌다.

가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종이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소비자가 좋아하게 된 물건은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한 가격 변화를 보고, 기업은 이윤을 늘리고자 가격이 상승한 물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인위적 시장 개입 없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스스로 작동해 소비자가 더 행복해진다.

## 2014~21년 서울 아파트값 2.5배 급등

이런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정부나 중앙은행은 종종 가격 결정에 개입한다. 특히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나 통화량을 조정해 금융 시장의 가격인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금리 정책은 원래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90년 전 쓴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의 처방에 따라 경기 변동과 실업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나 정부의 대출 규제 조정 정책은 자칫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폭등을 가져올 수 있고,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결국 폭락하면 금융 위기까지 야기할 수 있어 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2014년 이후 2021년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이 2.5배나 폭등했다. 전셋값도 70% 급등했다. 집 없는 서민

은 멀어져 가는 내 집 마련의 꿈으로 좌절하고, 집값과 함께 오르는 전셋값으로 더욱 좌절했다. 주택담보대출도 470조원 넘게 증가해 집을 구매할 집주인도 가계 부채의 큰 짐을 안게 됐다.

## 싼 이자 속 늘어난 대출이 집값 자극

이러한 부동산값 폭등은 금리 정책과 부동산 대출 정책에 기인했다. 중앙은행이 돈을 빌리는 값인 금리를 낮추고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면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집을 팔려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집을 사려고 5억원씩 저축한 실수요자들이 100명이라고 하자. 실수요자가 모두 집을 사기 위해 경쟁하면 집값은 5억원에 결정될 것이다.

이때 은행이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면, 실수요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남들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집을 사려 할 수 있다. 특히 금리가 낮을수록, 예를 들어 금리가 0%에 가까우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니 누구나 은행 돈 빌려서 집을 사려 할 것이다. 저금리로 인해 100명이 모두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 경쟁하게 되면, 결국 집값은 은행 대출만큼 오른다. 은행이 1인당 5억원씩 대출해 주면, 집값은 1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 결국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은행의 대출과 저금리로 인해 집을 산 사람들은 은행 대출 5억원만큼의 빚을 지고 10억원에 집을 사게 된다. 금리를 더 낮출수록 그리고 1인당 주택 대출을 더 늘릴수록 집값은 더 오른다. 은행이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 대출해 주면, 집을 산 사람들은 10억원만큼 빚을 지고 15억원에 집을 사게 된다. 낮은 이자율과 주택 대출이

가계 부채만 늘리고 집값만 올린 것이다.

전셋값도 마찬가지다. 낮은 이자율에 은행이 전세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전셋값은 더 오른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려도 전셋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르면 이에 따라 전세를 주려던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집을 팔 수 있다. 그 결과 전세 공급이 줄어들어 전셋값이 오르게 된다.

## 부동산, 가격 상승→공급 증가안 돼

다른 재화와 달리 부동산은 가격이 오른다고 생산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 땅 위에 짓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제한돼 있다. 일정한 위치의 부동산,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의 땅은 가격이 오른다고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은 부동산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집값과 전셋값, 가계 부채만 늘릴 위험이 있다. 특히 저금리 정책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와 동시에 이뤄지면 수요 증가와 함께 은행의 주택 및 전세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만큼 집값과 전셋값이 급격히 오를 수 있다.

실제로 2014년 '초이노믹스'로 상징되는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다. 2014년 7월에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LTV를 70%, DTI를 60%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발맞춰 2014년 기준금리를 2.0%로 낮추고, 이어 2015년 1.5%, 2016년 1.25%로 인하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2015년 40% 이상 늘며 3년 새 200조원이나 증가했다. 저금리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부채질을 하고 가계 부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미 집값에 불이 붙은 2017년 이후 정부는 부동산 급등을 저지하고자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증가, 공시 가격 현실화 같은 세제 정책



을 중심으로 한 대책은 조세 저항만 일으키고 의도와는 달리 가격 급등 저지에 실패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인 저금리에 대해 크게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급등함에도 한국은행은 금리를 2020년에 0.5%까지 낮추는 등 이 기간에 2% 이하의 낮은 저금리를 지속해서 유지했다. 특히 이 기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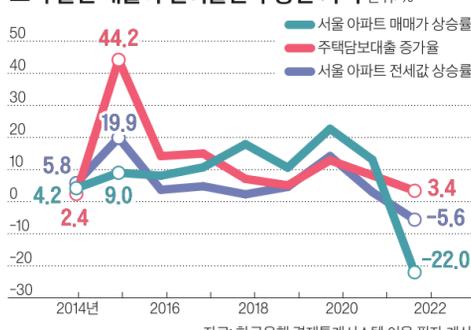
낮출수록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김세직의 이코노믹스 2월 20일자 참조)

## 일본의 저금리, 버블 붕괴·금융 위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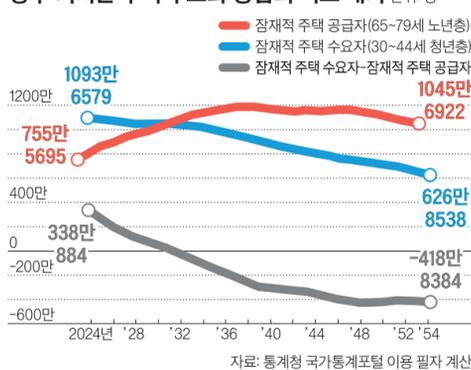
다행히 2021년 하반기 들어 금융위원회가 가계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주택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고 한국은행이 0.5%까지 낮아져 있던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에 쉰한 부동산 대책에도 그칠 줄 모르고 상승하던 집값이 마침내 2021년 10월을 피크로 해 2022년 대선까지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낮은 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보이는 또 다른 증거였다. 이후 한국은행은 금리를 3.5%까지 올리는 인상행진을 이어갔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돼 왔다.

그러나 최근 빌라 전세 사기의 여파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울시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고

## 고삐 풀린 대출이 밀어올린 부동산 가격



## 향후 커지는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 매치



있다. 전셋값 상승에 더해 금리 인하 및 부동산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로 집값도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정책적으로 자칫 방심해 민간에 잘못된 부동산 기대 심리를 심어주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계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다다른 지금 만약 정책 미스로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면 결국은 가격 급락으로 반전할 위험성도 커지는 만큼 매우 세심한 금리 및 부동산 정책이 요구된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저금리 정책은 수년간 걸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뒤 결국 1990년대 초 부동산 가격 버블 붕괴와 금융 위기로 이어졌다. 향후 집값이 또다시 크게 오르고 그 결과 금융 위기 압력이 커지는 일이 벌어지면 국민은 이같은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 분명하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분배금)에 붙는 세금을 실제로 인출할 때까지 미뤄주는(과세이연) 혜택이 있어서다. 이들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ETF 투자는 가능하지만, 직접 해외ETF에 투자할 수는 없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본부장은 “장기적인 퇴직금이나 연금 목

적이려면 과세이연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ETF를 선택해야 유리하고,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22%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해외ETF 직접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남윤서 기자

##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용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용자에 맡겨 주세요!

---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트 건너편 위치)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Banking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B2501870; MD 2501870; NC L-219065; VA MC-7782; TX 2501870; PA 108823; FL ML02525;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쏿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 제임스 박 부동산

Ashburn Town H

급매!!

4 br 3.5 baths, End Unit  
Built 1996

\$520,000 (시세 \$60만)

Clifton Single

급매!!

6 br 7 baths, 3 Car Garage,  
4,500sf, Built 1994

\$1,150,000 (시세 \$140만)

Centreville Single

급매!!

4 br 2 baths, Walkout B

\$500,000 (시세 \$65만)

Centreville Town H

급매!!

3 br 2+2 baths, Walkout B

\$390,000 (시세 \$49만)

Aldie Large Town H

급매!!

3 br 2.5 baths, 2 Car garage,  
3,000sf, Built 2012

\$640,000 (시세 \$71만)

571.242.4500

james2424500@yahoo.com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 “주택 인허가·착공 급감… 내년 이후 집값 급등할 수도”

“주담대 금리 하락에 매매 증가” 수도권 이어 지방도 오를 가능성  
올 35만가구 착공, 예년보다 부족  
전문가 “공급 늘릴 정부대책 필요”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 등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일자리가 많은 지방 광역시도 집값이 강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착공이 급감한 상황이라 주택 공급 부족이 누적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집값 폭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내놨다.

주산연은 올해 3월 말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접어들기 시작해 5월 말부터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도 상승세를 보이고, 9~10월쯤엔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의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작년 5.0%대 수준에서 올해



3.5~4.5% 수준으로 내려와 올 상반기에 서울부터 매매가 늘기 시작했다”며 “하반기 미국이 기준금리를 1~2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돼 매매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경제성장률 수치가 개선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 점도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4% 상승했다. 지난 4월 0.09% 오르며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 상승 폭을 더 키웠다.

하지만 미분양이 쌓인 지방은 집값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

해 주택 매매 및 전세값이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된다. 주산연은 주택 매매가격은 올해 연간 서울이 1.8%, 수도권은 0.9% 상승할 것으로 봤으나, 지방은 2.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도 임대차법 시행 4년차(2+2년)에 따른 계약만기 도래로 공급이 부족한 대도시권은 상승 폭이 커지겠지만, 지방은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봤다. 올해 전셋값은 연간 서울이 2.3%, 수도권은 2.5% 오르고,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주택 공급 부족 상황과 맞물려 2025~26년 집값 폭등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주산연은 올해 착공 물량이 35만 가구로 작년(24만2000가구)보다 늘었지만 예년 평균(약 52만 가구)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착공 후 2~3년 뒤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걸 고려하면 2022년부터 급감한 주택 착공이 내년부터 공급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이런 점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여러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주산연이 주택건설사업자와 디벨로퍼 3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주택사업자 81%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또 70%가 향후 1년

내 주택사업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사비 급등, 고금리와 높은 수수료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어려움, 다주택자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매수 기피 등을 사업성 악화 요인으로 꼽았다.

김덕례 선임연구원은 “상당수 사업자가 PF 조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1년간이라도 ‘관계기관합동 PF지원단’을 설치해 한 번에 지원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문제도 현재 PF 구조상 시공사 스스로 미분양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분양 매입시 과거 같은 세제 감면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 지방도시공사 역할 늘린다지만… ‘부채비율’ 규제에 발목

주택공급에 대규모 자본 필요한데 ‘부채비율 200%’ 규제에 발만 동동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방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도시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데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기조에 맞춰 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추가 여력을 내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올해 초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왔던 3기 신도시 개발에 지방주택공사의 역할을 키워 공급 속도를 높여준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침체한 지역경제와 건설 경기를 살리

기 위한 목적이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일액(20~25%)을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줄여주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13일 지방공사 등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발목을 잡는 건 정부의 ‘부채중점관리제도’다.

기존에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는데 지난해 10년 만에 제도가 개편됐다. 올해 적용되는 개편안에선 부채가 1000억원이 넘더라도 수익성이 양호한 기관은 제외하는 등 일부 지표가 완화됐으나 관리체계는 2단계로 강

화됐다.

그간 부채중점관리기관만 지정해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에 그쳤다면 앞으로 부채중점관리기관(1단계)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추가 심의해 부채감축대상기관(2단계)으로 지정한다.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행정안전부는 공사채 사선승인 거부(차환포함)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지방공사들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부채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공사채 발행 사전 승인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iH) 같이 비교적 자본 규모가 작은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게 책정돼 각종 사업 추진 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2022년 결산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부채는 18조1688억원으로 5조9894억원을 보유한 iH보다 부채가 12조1794억원이나 많지만, 자본이 3배 이상 많아 부채비율은 185.5%에 그쳤다. iH의 부채비율은 199%를 기록했다. iH의 관계자는 “빚을 갚는 노력에도 자본금 규모가 작아 비율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용지 신규매각 계획과 매각실적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iH

의 경우 재정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개발 사업에 따른 용지 매각으로 충당하는데 올해 신규매각 계획은 약 1조10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와중에 나후된 원도심 재생사업과 주거복지 등 정부·지자체 정책 사업과 인천광역시 청사 매입자금까지 마련해야 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iH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시 정부로부터의 자본금 확충(현물출자 등)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2026년까지 4000억원 이상의 출자를, 대전시도 대전도시공사에 6000억원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차원의 효율적 부채비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유럽 기자

중양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양일보가 함께합니다.**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개런티 이자  
/단기(3년, 5년, 7년)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틀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채터 7·채터 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채터 5·채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 6월 **HOT** 리스팅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수 있어,  
파리 뒤를 쫓으면 번소 주변을,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 집니다.**

셀러-집팔때 신경쓰기 싫고, 부동산이 주인 입장에서 잘 알아서 해결해 주기 원할때,  
비키리 부동산에 전화 주세요.

바이어-매물 부족, 이자율 상승으로 힘든 바이어 마켓에 어느때보다 전략이 절실한 때 입니다.  
확실히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택 매매 / SALE



####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 주택 매매 / SALE

####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팅, 임대주택 관리**

## 비키리 부동산

전화 **703-231-5572**  
문자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용자 칼럼

# 노다운 프로그램

이자율이 높고 주택가격의 상승 부담은 여전히지만 주택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경쟁도 치열하다.

모든 원인은 지독히 부족한 매물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려다보니 셀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다운을 하고 용자를 적게 얻는 바이어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전통적인 첫 주택구입자들이 현 주택시장의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이기도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다운 페이먼트 때문이 아닐까 한다.

아무래도 다운 페이먼트를 원만큼 준비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구입 계획을 잡다 보니 비교적 낮은 다운 페이먼트 용자 옵션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낮은 다운 페이먼트 옵션으로 오

를 쓰는 바이어들을 셀러 입장에서는 그리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낮은 다운 페이먼트 용자 프로그램을 하면 바로 3.5% 최소 다운으로 비교적 낮은 크레딧 점수에도 용자가 가능한 FHA 정부용자인데, 그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증 수수료 때문에 늘어나는 클로징 비용 부담과 또 오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안고가야 하는 모기지 보험료 때문에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이러한 FHA 정부용자의 단점을 많이 보완한 최소 다운 페이먼트(3% 다운) 컨센서널 용자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선호되는 추세이다.

물론 이 또한 3% 다운 옵션으로는 현 셀러스 마켓에서 셀러에게 어필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낮은 다운 페이먼트로 주택을 구입할



배준원  
그린웨이 펀딩그룹 부사장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한 가지 희소식은 최근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이는데 오늘은 '노다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3% 다운 페이먼트를 은행이 이자를 받지 않는 2차 모기지 형식으로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바이어는 클로징 비용만 부담할 수 있으면 100% 용

자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3% 다운 페이먼트 만큼은 무이자로, 나중에 집을 팔 때 혹은 재용자를 할 때 갚기만 하면 되는 상당히 진일보한 방식의 이 노다운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다운 페이먼트 준비에 아직 여유가 없는 많은 첫 주택구입자들, 그리고 더 준비해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하고 첫 주택구입의 꿈을 자꾸 뒤로 미뤘던 많은 이들에게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꿈을 뒤로 미루지 말고 현 시장에서 한번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로 다가온다.

실제로 3% 다운으로 지금의 이 치열한 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길이 열렸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군인용자만이 노다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첫 주택구입자라면 노다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첫 주택구입자로서 해당 카운티의 중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로 제한이 되고 또 Homeownership counseling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자격요건이 되는 바이어들이라면 3%에 달하는 다운 페이먼트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구입의 꿈이 보다 더 현실화되는 면에서 좋은 기회로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의 핫하디 핫한 시장에서는 당장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시장은 항상 변하는 법. 다시 바이어스 마켓으로 다가오는 시점에 이번 노다운 프로그램이 시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703-868-7147

## 주택유지비용 상승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추면서 모기지이자율이 확실히 하락세로 반전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지가 상승하면서 4월부터 거래량이 전국 평균 1.9% 하락하고 새집의 경우 4.7% 내린 상황이다. 가주부동산협회의 최근 조사에서 가주 주택 중간가격이 처음으로 90만 달러를 돌파하는 기현상이 다시금 재현됐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금리 인하가 지체되면서 신규 주택의 건설이 주춤해지고 있다. 또 전국 주택의 거의 3% 정도를 대규모 기관투자가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매물의 부족이 주택시장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내년에도 일반 주택 임대료가 전국적으로 최소한 자릿수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주택소유주의 85% 정도가 주택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주택소유주들도 매매를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판매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본다.

캘리포니아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위기상황을 다시 정리해본다. 주택유지를 위한 제반 비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틸리티 비용의 상승세, 주택보험의 신규 가입 어려움과 더불어 보험 프리미엄의 대대적인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정적자 상태가 누적된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추가 세금을 여러 형태로 부과를 시작했다.

HOA가 있는 단지들의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테넌트와 집주인 간의 분쟁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소송도 많아졌다. 전 국민이 체감하기 시작하는 실업과 수입감소로 인한 재정적인 압박으로 가계 부채가 177조 달러에 달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기존 주택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신규 주택 구매자들에게 압박감을 느낄 만하다.

5월이 지나면서 위기상황이 현실화되는 중이다. 보험사들의 경우 가주보훈국(DOI)과 주 정부에게 사업 철수와 신규가입 불가를 천명하면서 앞으로 최소 15% 이상의 리뉴 프리미엄의 인상을 허락받고 있다.

보험사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도 시작되고 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민사회에서 체감하지 못했던 경제위기가 늘어나는 폐업과 해고의 증가로 인해 고조되는 위기가 피부로 다가오는 중이다.

지난 2년간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소유주들, 이자율 상승 후 높은 이자와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월 페이먼트 비중이 높은 소유주들, 지난 몇 년간 지나친 테넌트 보호 정책이 강화된 지역의 임대주택소유주 등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소매업소의 해고가 급등한 테넌트 밀집 지역의 소유주들과 주택 유지비용의 상승과 더불어 수입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택 소유주들도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넘겨야 한다.

박재혁·퍼스트팀부동산

## 커머셜 조닝

조닝은 크게 주거용 (R, Residential), 상업용 (C, Commercial), 공업용 (M, Manufacturing)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지역의 조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조닝은 사용 용도에 따라 C1부터 C5까지 용도가 분류됩니다. 다른 조닝과 마찬가지로 높은 숫자의 조닝에 허용되는 사용 용도가 확대됩니다. 상업용 조닝은 주거용 조닝과 인접해 있고 서로 상호 보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는 주거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상업용 조닝에 주거시설 복합사용 (주상복합)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많아 상업용 조닝의 용도가 더 다양해졌습니다.

상업용 조닝 코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C1 지역은 주로 소규모 상업 활동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과 인접합니다. 이 지역에는 작은 상점, 카페, 사무실 등이 주로 위치하며 부지 크기와 건물 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C2 지역은 지역 상점과 서비스 시설을 포함한 상업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 지역은 근처의 주거 지역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주로 슈퍼마켓, 은행, 음식점 등이 위치합니다.

C3 지역은 도시의 주요 상업 지역으로 다양한 업종의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로 대형 상업 시설, 호텔, 사무실 건물 등이 위치하며 고객과 교통

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C4 지역은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상업 활동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4 지역이 주거용 조닝의 R4로 용도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오피스 건물이 아파트로 용도변경이 되는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C5 지역은 도시의 중심상업지구로 고층 상업 빌딩과 사무실 건물이 주로 위치합니다. 이 지역은 도시의 경제적 중심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상업 및 금융 활동이 집중됩니다.

주거용 조닝인 R5로 용도변경이 허락되는 경우 고층 아파트를 위한 용도 변경 및 개발이 가능합니다.

CM 지역은 상업 및 제조업을 위한 지역으로, 공장과 창고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 지역은 대규모 상업 시설과 제조 시설이 주를 이루며 산업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CM 지역은 도시의 제조업과 공업 분야의 발전을 지원 합니다.

조닝은 각 도시가 세워놓은 도시계획을 이루기 위해 용도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건물 구매 전 셀러는 가능했던 용도가 새로운 바이어에게는 같은 용도일 지라도 허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각 지역의 조닝 코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적절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렉스 유·CBRE Korean Desk 대표

>>1면 '홀오너'에서 이어집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첫집 장만을 한 이들뿐 아니라 최근 산 집에서 평생 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구입할 집에 너무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며 "또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만약 주택 구입을 위해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면 일단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구입보다는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며 "그동안 다운 페이먼트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리얼티 원 부동산**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추천 주택 리스팅** (자세 인테리어 소품 구비)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p><b>SOLD</b></p> <p><b>Bowie</b></p> <p>\$645,000 싱글홈, 방4, 화4, 차고2</p>	<p><b>UNDER CONTRACT</b></p> <p><b>Edgewater</b></p> <p>\$575,000 싱글홈, 방3, 화2, 0.45에이커</p>	<p><b>SOLD</b></p> <p><b>Rockville</b></p> <p>\$280,000 콘도</p>	<p><b>COMING SOON</b></p> <p><b>Perry Hall</b></p> <p>싱글홈, 방3, 화2</p>	<p><b>UNDER CONTRACT</b></p> <p><b>Elkridge</b></p> <p>\$559,000 타운홈, 방4, 화3, 차고2</p>
<p><b>UNDER CONTRACT</b></p> <p><b>Elkridge</b></p> <p>\$950,000 싱글홈, 방5, 화3.5, 차고2</p>	<p><b>UNDER CONTRACT</b></p> <p><b>Ellicott City</b></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화2, 1,438sf</p>	<p><b>UNDER CONTRACT</b></p> <p><b>Ellicott City</b></p> <p>\$475,000 타운홈, 방2, 화2.5, 차고1</p>	<p><b>COMING SOON</b></p> <p><b>Rockville</b></p> <p>싱글홈, 방5, 화2, 차고2</p>	<p><b>SOLD</b></p> <p><b>Cockeysville</b></p> <p>\$470,000 싱글홈, 방4, 화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p><b>RENT</b></p> <p>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p>	<p><b>RENTED</b></p> <p><b>Elkridge</b></p> <p>월 \$2,400 타운홈 방3, 화3</p>	<p><b>RENTED</b></p> <p><b>Sliver Spring</b></p> <p>월 \$3,500 타운홈</p>	<p><b>Germantown</b></p> <p>월 \$2,100 콘도 방2, 화2</p>	<p><b>Hanover</b></p> <p>월 \$2,650 타운홈 방3, 화3, 차고1</p>	<p><b>Germantown</b></p> <p>월 \$2,000 타운홈 방2, 화3 (지하실 제외)</p>	<p><b>Glen Burnie</b></p> <p>월 \$1,750 콘도 방2, 화1</p>
--	---	---	---	--	---	--

#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래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sup>rd</sup>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 16년만에 NBA 왕좌 오른 보스턴, 역대 최다 우승팀 등극

챔피언 결정전 4승 1패 델러스 꺾어 18번째 우승, 17회 레이커스 제쳐 '떡튀 논란' 브라운, 시리즈 MVP

보스턴 셀틱스가 16년 만에 미국프로 농구(NBA) 왕좌에 올랐다.

보스턴은 18일(한국시간) 보스턴의 TD 가든에서 열린 델러스 매버릭스와 의 2023~24시즌 NBA 챔피언 결정전(7전 4승제) 5차전에서 106-88로 이겼다. 보스턴의 '원투 펀치'인 포워드 제이슨 테이텀(26·2m3cm)과 가드 제일런 브라운(28·1m98cm)은 각각 31점 11어시스트 8리바운드와 21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이로써 보스턴은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통산 18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보스턴이 챔피언이 된 건 2007~08 시즌 이후 16년 만이다. 보스턴은 또 라이벌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17회 우승)를 제치고 NBA 역대 최다 우승 부문에서 단독 1위가 됐다.

보스턴은 올 시즌 최강 팀이라고 부를 만하다. 정규 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리그 30개 팀(동부·서부 콘퍼런스) 중 유일하게 60승 이



NBA 우승 직후 래리 오브라이언(NBA 우승 트로피의 별칭)을 들어 올리는 보스턴 셀틱스의 핵심 가드 제일런 브라운.

[AP=연합뉴스]

상을 기록하며 동부 콘퍼런스 1위(64승 18패)에 올랐다. 플레이오프에서도 거침이 없었다. 보스턴은 마이애미 히트(4승 1패),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4

승 1패), 인디애나 페이서스(4승)를 차례로 물리친 뒤 챔피언 결정전에서 델러스를 상대로도 1~3차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승기를 잡았다. 4차전을 내줬

지만, 이날 5차전에서 승리하면서 손쉽게 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정규 리그 서부 콘퍼런스에서 5위(50승 32패)를 하고도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했던

델러스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아쉬움을 삼켰다.

챔피언 결정전 MVP는 예상을 깨고 보스턴의 에이스 테이텀이 아닌 '2인자' 브라운에게 돌아갔다. 브라운은 챔피언 결정전 5경기에서 평균 20.8점, 5.4리바운드, 5.0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시리즈 초반 부진했던 테이텀 대신 에이스 역할을 했다. 테이텀은 정규 리그 내내 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정작 챔피언 결정전에선 브라운의 조력자 역할을 했다.

브라운은 '떡튀 논란'에서도 벗어났다. 그는 올 시즌 개막을 앞둔 지난해 7월 보스턴과 2028~29시즌까지 5년 동안 3억400만 달러(약 4200억원)에 연장 계약을 했다. 당시 미국 ESPN은 "리그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는 "브라운에겐 과한 몸값"이라고 지적했지만, 브라운은 한 시즌 만에 우승을 이끌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브라운은 USA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팀원 모두를 대표해서 내가 MVP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동료들 덕분에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피주영 기자

## K콘텐츠 열풍 뒤엔 '더빙' 있다... "오jem 불어판, 이정재 목소리 같아 몰입"

넷플릭스 더빙 수준 분석해보니 한국어 유창한 외국인 4명 '감탄' '입모양 잘 맞고, 감정연기 완벽' 안재홍 등 다작배우엔 담당성우도 "더빙이란 사실 잊어야 좋은 더빙"

'국제 더빙의 날'(매년 6월 12일)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사무실에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 4명이 모여 작품별 더빙 수준을 분석했다. 분석한 작품 중 하나는 22개 언어로 더빙돼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2021).

구슬치기 게임을 앞두고 기훈(이정재)이 자신의 상대인 치매 노인 일남(오영수)에게 분노와 불안을 쏟아내는 장면이다. "당신은 (누에) 흑이 있어서 어차피 죽을 거라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꼭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해, 나는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미국인 타일러 라쉬(36)는 해당 대사

가 영어로 더빙된 버전을 보고 "한국어 보다 의미 전달이 더 잘 됐다고 느꼈을 정도"라면서 "배우가 영어로 말을 한 것처럼 입 모양이 잘 맞았고, '영감'을 '올드 맨'(old man)이라고 부르며 약간 낮춰 부르는 듯한 감정을 담아 목소리 연기를 한 덕에 기훈의 답답함이 잘 드러났다"고 말했다.

프랑스어 더빙판을 본 줄리안 쿼타르트(37)는 "이정재와 비슷한 목소리가 불어판에 많이 없는데, 비슷한 연령대 남성을 성우로 잘 섭외해 몰입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어 더빙판을 본 크리스티나 콘팔로니에리(43)와 포르투갈어 더빙판을 본 카를로스 고리토(38)는 각각 나폴리와 리우데자네이루를 언급하며 "현지 사람이 화내는 톤과 똑같다"며 감탄했다.

이날 행사 이후 중앙일보와 만난 캐서린 르타트 넷플릭스 더빙 총괄 디렉터와 존 데미타 프로덕션 매니저는 "더빙은 한국의 뛰어난 콘텐츠가 전



지난 5일 만난 캐서린 르타트 더빙 총괄 디렉터(왼쪽)와 존 데미타 프로덕션 매니저. [사진 넷플릭스]

세계로 나가는 데 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넷플릭스는 연내 공개 예정인 '오징어게임' 시즌 2 역시 시즌 1의 동일한 성우와 더빙 작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넷플릭스 콘텐츠는 한국어를 영어로 전환한 뒤, 영어판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로 더빙한다. 성인 대상은 17~18개, 키즈 콘텐츠는 최대 35개 언어까지 작업한다. 성우 겸 배우 출신인 데미타 매니저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것이 한국 콘텐츠의 강점"이라며 "K-콘텐츠가 가진 본질과 낯익은 목소리가 더빙을 통해 사라지는 것을 극

도로 경계하면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문장에 많은 정보가 담겨있거나, 속담·언어유희와 같은 한국어 대사의 경우, 맥락을 살리는데 집중한다. 또 '오빠' '언니' '누나' 등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들은 한국 단어를 그대로 살렸고, '아이씨' '어머' 등 감탄사도 외국 성우의 목소리로 구현했다.

성우 캐스팅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마스크걸' '닭강정'의 안재홍, '지옥' '정이' '선산'의 김현주 등 넷플릭스 다작 배우들은 담당 성우가 있을 정도다.

더빙 작업을 총괄하는 르타트 디렉터는 "문화적·기술적·언어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의 본질을 여러 언어로 전달하는 더빙은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제2의 제작'이라 말할 수 있다"며 "시청자가 작품을 볼 때 '더빙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어야 좋은 더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환희 기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 1. 저렴한 비용
- 2. 편리한 풀서비스
-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Mary: I'm upset about something and I'd like your opinion.  
매리: 내가 화가 좀 났는데 네 의견이 필요해.  
Jane: This is about your love life, isn't it?  
제인: 연애에 관한 거지, 안 그래?  
Mary: Yeah sort of... what do you think of Ed?  
매리: 말하자면 그래. 너 에드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Jane: Well, you know him better than I do but you said he makes you happy.

제인: 그 사람이야 나보나 네가 더 잘 알잖아. 그 사람은 너를 기쁘게 해준다며.  
Mary: He does, I know he respects me but his past bothers me.  
매리: 맞아. 나를 존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의 과거가 좀 걸려.  
Jane: His past? Was he a killer or something?  
제인: 과거라니? 누굴 죽이더라도 한 거야?  
Mary: No. He had a girlfriend that he was in love with.

매리: 아니.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Jane: That's what you're worried about? That's ancient history.  
제인: 그게 걱정인 거니? 그거야 이제 상관도 없는 옛날 일이야.  
Mary: But I can't get it out of my mind.  
매리: 하지만 그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Jane: Come on Mary. Get over it. You've got to forget about it.  
제인: 매리 정신차려. 그런 건 잊어버려야 돼.

love life: 연애에 관한 부분

(Two friends are having coffee...)  
(친구 둘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기억할만한 표현

▶that's (or it's) ancient history: 더이상 중요하지 않다  
"I wouldn't worry about it because it's ancient history." (그건 이전 중요하지 않은 옛날 일이나 저라면 그걸로 걱정하지는 않겠습니다.)  
▶get (something) out of (one's) mind: 걱정거리를 떨쳐버리다, 생각하지 않다  
"I can't get that movie out of my mind." (그 영화가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가로 열쇠

(1)바람 앞의 등불.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 (4)전라북도 전주 지방과 경상남도 진주의 향토 음식 (6)자기 관한 밖의 일에 관여함 (7)음식을 차려 놓는 사각형의 큰 상 (9)형 겹이나 강철로 피처럼 만든 자 (11)집안 살림에 쓰는 기구. 침대는 ~입니다 (12)사람이 통행하는 길 (14)샷을 주고 사람을 부림 (15)물고기를 잡을 때 물에 뜬 고기를 건져 뜨는 기구 (17)일정한 수나 수량을 다 채우고 남은 수나 수량. 식당 주인은 ~로 두 마리의 은어를 회쳐 주었다 (19)사회사업의 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 바자 (20)음식의 맛을 알맞게 맞추는 데에 쓰는 재료. 양념 (21)더할 나위 없이 천함. 매우 흔함 (22)거울을 달아 세운 가구 (24)건강이나 행복 따위를 빌면서 함께 술잔을 들어 마심 (25)마음을 느낀 바 (27)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인물 (29)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 (30)먹기 좋게 곁을 당분 있는 것으로 썩 알약 (31)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같음

세로 열쇠

(1)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주□ (2)맡겨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 ~을 위임하다 (3)외국에서 정착하여 사는 중국 사람 (4)긴급한 사태가 있을 때에만 열어서 사용하는 출입구 (5)먹고 살아가는 방책이나 직업. ~이 끊어지다 (8)개인의 가정에서 전용하는 자동차 (10)잡자리의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13)남에게 봉사하는 사람 (14)쇠붙이나 줄을 양 끝을 맞붙여 둥글게 만든 물건 (15)비스듬하게 그은 줄. 빗금 (16)신체의 내부를 관찰하는 기계 (18)일정한 학과를 다 배워 끝냄 (19)자기를 추천함 (20)배를 만들거나 고치는 곳 (21)상인을 대신하여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 책임자 (23)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림.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짐 (24)술에 취한 체하고 하는 주정 (26)일 따위를 맡아서 능히 해냄. 일이 너무 어려워 내 힘으로 ~을 못하겠다 (28)탄환의 뇌관을 쳐 폭발하게 하는 송곳 모양의 부분 (29)몸을 움직임

스도쿠

6	5	1						9
	8							5
1			9	8			6	
8		4	7					
		3		4			7	
					1	4		5
		8		5	7			4
	4						7	
5					8	9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9	6	8	3	4	1	7	5
8	7	5	6	2	9	4	3	8
4	3	1	4	7	8	6	2	9
5	9	1	4	3	5	7	6	2
6	8	7	2	5	4	3	1	6
1	4	3	2	9	6	7	5	8
3	9	6	5	8	7	9	2	1
7	5	7	6	1	5	7	4	8
9	2	8	7	4	1	5	3	6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EXP. DATE: / / month year CVS: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 회계사 사무실

##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 정성옹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 카툰 릴레이

#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직업**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aquaviwater.com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수해 드립니다.

##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179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249

알칼리수 \$219

알칼리수 \$23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 무료 설치
-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 SAVE MONEY

###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중앙일보 애독자 분들께 알립니다**  
오는 7월부터 생활안내 섹션 줄광고가 1개월 \$20 유료광고로 전환을 알립니다. 기존과 신규 일반광고주는 계속해서 무료로 줄광고 서비스 해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생활안내 무료 광고를 애용해주신 분들께 앞으로도 변함없는 후원과 관심, 지속적인 이용 바랍니다.

**단체 광고 문의 접수 받습니다.**  
보험, 골프레슨, 홈비즈니스 등 같은 전문 분야 분들이 공동 광고를 통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한 이미지로 사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세요.  
▶ 자세한 문의: 703-281-9660 또는 kdclass2018@gmail.com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인/구직

###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Graphic Designer:** Design graphics to meet specific commercial or promotional needs, such as packaging, displays, or logos. Use common designing programs such as CorelDRAW, QuarkXPress, VCarve Pro, and photoshops & illustrators. 40 hrs/week. Master in Design or Fine arts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and Job Location: HIZ Solution Inc dba HIZ Design & Print or HIZ Creative Design at 7535 Little River Tpke Suite 120C, Annandale, VA 22003

**Accountant:** Manage daily operations of ledgers such as payroll, billings, accounts payable & receivable, cost allocations: Use accounting programs such as Quickbooks and Payroll Relief: Financial statements preparation. 40 hrs/week. Bachelor in accounting or Business Administration req'd. Send the application with proof of qualif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Michael W. Sim & Company, P.C. at 4605 Pinecrest Office Park Dr. Suite E, Alexandria, VA 22312.

**온라인 세일 및 웹사이트 관리자.**  
MD소재 식당장비 회사의 웹사이트 관리 및 온라인 세일 관리 도우실분. 재택근무, 파트타임 가능. 자기소개, 근무가능 시간 및 희망보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571-332-2101(문자)  
edk.tre@gmail.com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디자이너 / 웹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본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아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타임/파트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어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1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의 저회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안되신 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1년이상 회계업무경험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니쉬) 가능한 유,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버지니아 한의과 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a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문의: 703-850-1100/703-963-1234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  
-경험많은 Handyman  
-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핸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 〈식당/제과/델리/식품〉

**베이글샵에서 일하실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주 2-3일 홀 봐주**  
실분 구합니다  
Hour pay \$12불 plus \$tip  
703-473-6022

**센터빌 K-밥상 (롯데 푸드코트)**  
가족같이 일하실 캐시어 구합니다.  
443-864-0091

**엘리콧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사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롯데플라자 마켓 본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등)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관리자 모집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시간: 주 48~52시간  
-유경험자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스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입업 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کم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중앙일보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엘리트 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우경험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헌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르뱅 베이커리 캐쉬어 (오전/오후/주말)**  
703-263-2000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 〈이·미용실/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  
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  
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다가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703-717-825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바버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 〈세탁/엘터레이션〉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소통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픽업 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트시티**  
410-926-3200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 〈정비/바다잡〉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잡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 메케닉** 구함(애난데일)  
571-243-9899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문자 요망)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트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손 사이딩 크루 메케닉** 구함  
703 955 2827 / 540 680 157

**에어콘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창문형 3개, 이동형 1개  
703-635-9998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손사이딩 / 메케닉 크루**  
전화: 703-955-2827 / 540-680-1571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 〈기타 구인/구직〉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들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ilmck2@gmail.com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매치킨** 홀맡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워싱턴 델러스 공항 라운지에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일 하실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51-8861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너사스 (VA)  
▶301-537-3800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격: 성악 전공/지휘 전공  
음악 전공 (지휘 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테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문의: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센스 보유-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락빌에 위치한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집한다  
-자격: 성악전공 / 지휘전공 / 음악전공(지  
휘경력)  
-제출서류: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  
기소개서  
-제출할 곳: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남녀불문 경험자 우대. 속식도 가능.  
410-961-301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점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나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연락처: 443-621-2625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도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분들** 모집한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분  
연락: 240-903-0777



##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애난데일 Hmart 옆 \$2300  
방3화2유포(전기별도) 7/1 입주가능  
703-975-0123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학교  
410-599-1800

**스프링필드 싱글홈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 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자세한 사항은 문자요망)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4 화3. 소펄룸, 교통 편리  
2. 페어팩스 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소펄룸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 〈콘도 렌트〉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이,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 학생들은 직장여성  
욕실별도/세탁기 월 \$640(유포)  
대답업으면 메시지요망 614-615-9054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이달재 부동산** 703-483-0505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심신이 편안한 생활을 위한 단층주택, 1층 콘도, 뒷밭이 있는 곳으로의 이전을 시니어 고객 전문  
부동산인이 준비 상담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답답하고 주차난이 심한 타운하우스 등에서  
벗어나 병원, 그로서리, 레스토랑, 교통(1-66, 29, 28번 도로)이 원활한 지역에 소재한  
생활권으로 이전함으로써 "삶의 질"을 올리고 심신의 피로에서 벗어나세요.

**추천물건**

	<b>근교 단독주택</b> \$574,000 방3, 화3, Rambler, Ground Level, No HOA		<b>단독주택</b> \$526,000 방3, 화3, 차고1, 2000스퀘어, 2004년도		<b>55+ 시니어 주택</b> \$510,000 2024년도 신축, 방2, 화2, 차고1, HOA (\$150)
--	---	--	---	--	--

\* 기존 주택을 팔고 이주할 때 번거롭게 미리 집을 비우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 집을 팔거나 사기 전에 집을 손볼 곳이 있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시?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MD 락빌 홀푸드근처.  
1180sq/2bed/2bath  
3 & 4층 복층콘도. 좋은 학교  
전체 새마루. 7월 중순 입주가능.  
571-331-4746 (text 가능)

콘도 렌트. 방2, 화2, 깨끗한 이층집. \$1,700  
702-622-8853

## <방렌트>

TTA 애난데일콘도 방1, 주방/욕실/지정주차  
가, 세탁기/냉장고, 남자분/금연자  
571-355-6624

애난데일 지역 싱글홀, 방1개 렌트  
▶703-470-5238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롯데, H-mart 2분. 출입문 별도, 인터넷,  
화장실, 샤워, 유틸리티 포함. 출퇴근 하시는  
한분만 원합니다.  
703-405-9005

센터빌 콘도, 방2, 화자실2, 2층, Loft애난데  
일 도서관서동쪽 0.7마일 콘도 방1,  
취사가, 월 \$840(유포), 남금주금연자  
571-335-3739 (6pm 이후)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자취전체 세 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아난데일 K마트뒤 싱글홀 방하나, 주차넉넉  
703-965-2343

단독주택 센터빌 CVS 근처  
인터넷, 뒷층큰방 하나 여자분 환영  
571-251-2885

홀디포워, 주차장 넉넉함, 출입문 따로  
571-237-3411

애난데일, 노바근처, 방1, 화자실1, 침대, 책  
상, 초고속 인터넷, 냉장고, 출입문 별도.  
조용하고 깨끗한 싱글홀. 즉시입주 가능.  
703-772-7680(문자요망)

애난데일 H mart 옆 방 1 세놓음, 인터넷,  
가구일체, 취사가, 유포 \$700,  
직장다니는 남/녀, 즉시입주  
703-350-1986

Fairfax/Burke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한함, 문자바람  
571-214-0188

Woodstock, MD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유틸리티 포함(전기, 수도, 인터넷)  
화장실/침대 구비 금연남성 환영  
443-983-1880 문자 주세요.

##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쉐어) 사용공간 룸2개,  
리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의원, 네  
일, 병원 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애난데일 한강위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703-835-7404 (Wifi 제공)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 문자)



## <싱글/타운/콘도 매매>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 매매 (owner)  
\$340,000 방 2 화 2 세탁기 1218 SF.  
Condo fee \$390  
703-350-1986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홀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햄버러 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q.ft.,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쇼핑몰,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옆 좋은 위치 싱글홀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 <부동산/상업용 매매>

-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쇼핑몰,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버지니아 한인타운 성업중인  
반찬집/떡집/레스토랑 팝니다. 1700sf.  
한식, 일식, 중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703-989-430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일식집. 예쉬번 좋은 위치 무한 발전  
가능한 곳 관심있는 분 연락 주세요.  
703-951-2203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 메릴랜드 자이언트엠티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2400/SF  
1.2층.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Seafood Carry Out 주매상:\$9,000  
렌트: \$3,750 주 6일 MD Fort Washington  
매매가: \$170,000  
301-768-1240

## 기타

우표, 동전 오랫동안  
수집했던것 팔고자 합니다.  
240-723-511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걸기  
·장소: 버크레이크 헬터 /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천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 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유기견 해외입양 이동(임양보호) 봉사자  
한국에서 미국 돌아오시는 길에 유기견 해외  
입양보호자 봉사하실 분. 비용과 서류 절차  
등은 유기견 단체에서 다 제공하며 봉사자가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유기견들의 새로  
운 삶을 위하여 봉사바랍니다.  
▶문의: 카톡 ID 연락처 sibang0622  
전화 010-8944-3363, 703-244-3453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무를 농장 가  
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  
다. 교회, 식당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Golf 레슨합니다. 초보자 원포인트 환영  
706-203-5800

Falls church VA 메모리얼 파크 최고 명당  
한자리 풀 옵션 절반 샷가로 판매  
443-355-7700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 <중고품/기타 매매>

LG UHD AI ThinQ 65" 4K Smart TV \$230  
거의 새것. TV original box/case. 문자요망  
571-232-6071

## <건축/페인트/마루>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싱, 핸드맨서비스

▶문의: 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모든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롤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 <보석>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 <카펫·에어덕트 크리닝/마루>

토틸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 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다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 <이사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  
사짐 포장이사, 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햅팅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 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 업체  
▶703-855-3565

## <유리>

JK유리 & Window  
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입업 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만 잔디 깎기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 보험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http://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iversal)

#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성업중인 우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주방장**  
숙식제공 조지아주지역  
(646)229-2708

**Hello K-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워드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헐트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유효율 99%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터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산맥 **천공산삼**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총액의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질환 · 변비 · 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 · 이명 · 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쵸스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상담문의 E-Mail : info.tpk@jawsfood.com C.P : 714-715-5595

B. 미국 매장 현황

1. The source Mall (CA)
2. LA K-Town (CA)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7. Tampa Lotte Mart (FL)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김 공급 및 가격으로 힘드시죠?**

안전 인증 최고 맛 최저 가격 전국 최저 김밥김/스시김

한국산 고급 POS 종이 (한솔제지 최고급) | 식당용 고급냅킨 | 고급 대나무 젓가락 커스텀 디자인 제작

50roll / Box (2Ply 3,000장) | (2,000개 / Box)

213.985.4200 DOKDOSUPPLY.COM

■ 김밥용 전장김 (100장, 50장) ■ 일식당용 반장김 (200장, 100장)  
청해김은 2015년부터 DOKDO SUPPLY 회사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고급김 Brand로 현재 남가주에서 500여 곳 및 전국 일식당 1,000여 곳에서 애용되고 있습니다.

**독점 Alexandria** 킹타운 콘도

방2, 화장실1, 세탁기, 건조기, 계단없는 1층, 단지내 시설 좋음, 걸어서 쇼핑센터, 교통 좋음 **\$329,900**



**SOLD**

**독점 Centreville** 타운홈

좋은 위치의 밝고 깨끗한 환한 집, End Unit, 새로 단장한 마루, 부엌, 화장실, Granit top, All new appliance, 백야드 팬스, **\$439,900**



**Contract**

**독점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남향, 밝은 집, End unit, 1,475SF, H-Mart 가까운 동네. **\$370,000**



**독점 단독주택 Alexandria**

리모델링한 부엌 (새 주방용기, Granite counter-tops), 리모델링한 화장실, 새 나무 마루, New Paint, 방4, 화장실2, As-ls **\$58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사실 분·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